

1기 신도시 재건축, 역세권·대단지부터 시동

스페셜리포트

주택 노후도·주민 불편 등 고려
5개 지자체, 선도지구 1곳씩 지정
30만 가구 정비사업 로드맵 활용

개념	1기 신도시 지자체 내 우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단지
지정 대상	- 주민참여와 정비사업 시급성, 주변 파급효과 등 고려 - 1기 신도시 5곳 지자체 모두 의무 지정 예정
선도지구 대상 우선지역	역세권 및 통합 재건축 가능한 대단지

※출처 : 국토부, 정비업계

1기 신도시 30만 가구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채비를 하고 있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도시 특별법)을 선보이면서 우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1기 신도시 내 지역과 단지에 모든 시선이 쏠린다.

▶관련기사3면

입주 30년 차를 맞이한 1기 신도시의 주택은 물론 수도와 난방 등 관련 인프라 노후화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당장 재건축 사업 첫 삽을 뜨더라도 일정 물량의 순서를 정해 사업을 진행해야 해 최소 20년 이상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도 1기 신도시 정비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 인구분산 기능을 맡아 집값 안정핀 역할을 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지연된다면, 서울 아파트값 안정도 장담할 수 없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순항으로 추가 공급이 진행되면, 집값 급등기 때 안정적인 아파트 공급을 기대할 수 있어 유리하다. 이밖에 재건축이슈로 집값이 뒤흔들려가 적은 지금이야말로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펼치기 좋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번 신도시 특별법으로 가장 먼저 혜택을 볼 지역은 1기 신도시 내 재건축 선도지구다.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발표된다. 선도지구는 노후도와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먼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곳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고양·성남·안양·군포·부천시) 지자체장은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마다

한 곳씩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30만 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 내 아파트가 일제히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만큼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세종시 첫마를 사례처럼 우선 정비사업을 시행해 표준모델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선도지구에는 대단지와 역세권 단지가 우선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자료에는 ‘통합 정비사업 예시’로 대규모 블록과 역세권이 명시돼 있다.

일산에선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가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일산동구 강촌1·2단지와 백마1·2단지는 통합 재건축 추진위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은 통합 안전진단도 가장 먼저 신청했다. 일산서구에선 후곡3·4·10·15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진행 중이다.

분당에선 시범단지(삼성·한신, 우성, 한양, 현대)가 지난해 통합 재건축 추진위를 꾸리고 활발히 활동 중이다. 1991년 입주해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긴 노후 단지로, 총 7800가구 매머드급 단지 규모를 자랑한다.

평촌과 산본, 중동에선 지하철 4호선 범계역과 평촌역, 산본역과 7호선 부천시청역 일대 단지가 재건축 선두주자로 나설 전망이다.

다만 재건축 사업은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장밋빛 기대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도 단지별 순환개발을 완료하려면 20년 이상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봄을 알리는 매화 절기상 경칩(驚蟄)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성동구 청계천 하동매실거리에 매화가 활짝 피어 있다. 기상청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완연한 봄날씨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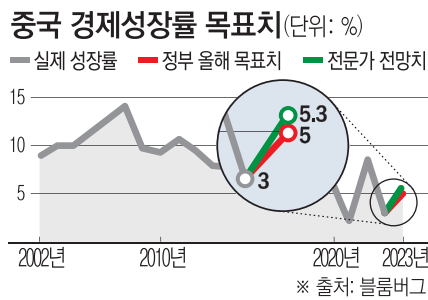
시진핑 3기 ‘바오우 사수’ 특명

올 성장률 5% 안팎 제시 ‘역대 최저’
리오프닝에도 경제안정 우선 신중론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 3%로 상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 공식 출범식인 양회가 4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정협) 개막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중국은 이튿날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바오우(保五·성장률 5%대 유지)’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전인대 개막식에서 임기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목표치는 최소 5% 이상이 될 것이라는 시장 예상과 부합했다. 그러나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충격에 아예 발표가 생략된 2020년을 제외하면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처음 발표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연초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임에도 목표를 안정적으로 가져갔다는 건 중국 지도부가 여전히 경제회복을 우려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지난해에는 ‘5.5% 안팎’이라



는 목표치와 달리 실제 성장률은 ‘제로 코로나’ 정책 여파로 3%에 그쳤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진핑 지도부가 5% 성장률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리 총리는 “올해는 경제안정을 우선시하면서 진전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 경제는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추가 성장을 위한 막대한 잠재력과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인 인 성장과 고용, 인플레이션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는 지난해 2.8%에서 3.0%로 끌어올렸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치는 3% 안팎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올해 신규일자리 창출 목표는 전년의 1100만 개보다 높은 1200만 개로 잡았다.

고대영 기자 kodae0@

금융사 성과급 개편 일반 직원도 사정권

금융회사 성과급 체계 손질이 보험·증권·카드사의 ‘일반직원’에게까지 향하고 있다. 임원 성과급 현황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회가 나서 일반직원의 성과급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5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 의원실은 지난주 금융감독원을 통해 전체 금융사의 성과급 6년치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성과급 지급 임원 총액 1인 평균치 △1인 최고 금액 △1인 최저금액 등이다. 주목되는 건 임원과 직원을 나눠서 각자 제출하라고 한 점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금융사 일반직원의 성과급은 당국이 건드릴 수 없다. 이 때문에 당국은 임원 성과급 체계를 손질해 결과적으로 일반직원들의 성과급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이어 보험·카드사와 증권사까지 성과보수 체계 점검을 확대해 ‘은행권 경영

국회, 1인 최고금액 등 요청 업계 “지나친 관치 역효과”

·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을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성과급을 포함한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심의받도록 해 주주들이 직접 경영진의 보수를 감시·견제할 수 있게 하는 ‘세이온페이(Say on pay)’ 도입을 검토 중이다. 임원이 기업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 행동을 할 경우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 back)’ 제도 도입도 살펴보고 있다. 이달 중 TF 실무작업반에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법을 개정해 성과급 지급을 견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사의 임원 성과급 규모와 산정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금융당국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도 담겨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사는 단순 이자장사가 아닌, 코로나19 이후 자체 체질개선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 등으로 호실적을 냈는데 성과급 지급이 왜 문제인지 역효과다. 민간회사의 일반직원 성과급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지나친 관치”라고 지적했다.

서지연 기자 sjy@

‘K바이오’ 성장 촉진제 처방한 정부

“K바이오 심장을 가다

K바이오가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하면서 바이오클러스터의 역할과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지난해 연매출 3조 원을 넘기는 기업이 최초로 탄생하는 등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 정부도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삼아 국가 중점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했다.

▶관련기사5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지역 거점별 바이오산업 특성화를 추진했다. 이에 전국에 다수의 바이오클러스터가 형성되면서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민간이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세계 1위 바이오클러스터인 미국 보스턴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가동 중이다.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 공표 민관, 국가대표 클러스터 조성 총력

대표 바이오클러스터로 대구·경북, 충북 오송, 강원 원주, 인천 송도 등이 꼽힌다. 정부 주도로 대구와 오송에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들어섰고, 원주에는 의료기 기테크노밸리가 조성됐다. 송도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대표 바이오 기업들이 입주해 K바이오 생산거점으로 발돋움했다. 본지는 국내 대표 바이오클러스터를 찾아 특장점과 경쟁력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K바이오 심장을 가다’ 기획을 통해 K바이오클러스터 글로벌 영향력 확대 방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유혜은 기자 eu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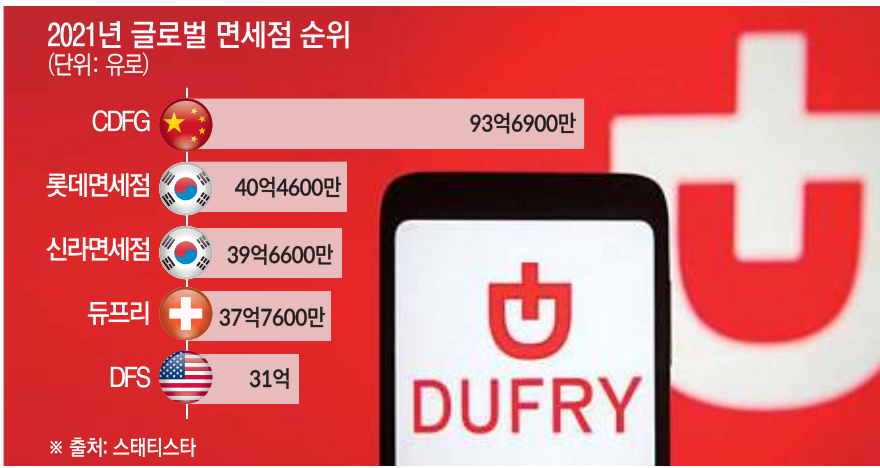
2보 전진 위한 1보 후퇴?...‘K면세戰 불참’ 듀프리 속내는

글로벌 기업 ‘인천상륙작전’ ❶

인천공항 면세 상반기 입찰 불참
김해공항 계약 조기종료說 돌며
하반기 입찰 참전 예상...韓 긴장

인천공항공사의올해상반기면세점입찰에글로벌면세업체1위중국국영면세점그룹(이하CDFG)이참여한가운데,또다른막강한글로벌경쟁자듀프리또마스쥘리코리아(이하듀프리)가인천공항입찰에최종불참했다.

하지만듀프리측이현재운영중인김해공항면세점을계약종료전에정리하고올해하반기열릴인천공항입찰에총력을기울일것이란전망이다.중국CDFG에이어듀프리까지글로벌면세기업들의한국시장공략이이어질것으로예상됨에따라국내면세업계는긴장



의 끈을 놓지 못하게 됐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스위스 듀프리는 2월 마감된 인천공항 면세입찰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듀프리는 전 세계 면세사업자 중 4위 업체로 지난 2021년 기준 올린 매출만 37억 7600만 유로(약 5조 32억 원)에 달한다. 지금은 국내 면세기업인 롯데(2위), 신

라(3위)에 밀렸지만, 한때 전 세계 1위를 지속할 정도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글로벌 면세공룡’이다.

인천공항 입찰에 불참했지만, 업계에서는 계약 만료일보다 6개월 정도 앞당겨 김해공항에서 면세점 운영 중단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듀프리는 ‘토마스쥘리코리아’라는 한국법인을 통해

김해공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최초 국내 사업자로 선정된 뒤, 2019년 한 차례 갱신에 성공하면서 2024년 2월까지 영업이 보장된 상황이다.

업계는 계약 종료 전 듀프리의 김해공항 철수는 하반기 예정된 인천공항 입찰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실제 인천공항 제1 터미널의 신세게디에프와 그랜드관광호텔의 면세 계약기간이 각각 7월, 9월에 만료돼 신규 사업자 선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해당 사업권 신규 조정 이후, 듀프리가 참여하는 경우 대기업과 중소·중견 사업권 중 어느 곳에 입찰 의향을 쏠릴지도 관심이다.

국내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아예 안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올해 초 인천공항 입찰 사업설명회에도 (듀프리가) 온 걸 보면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김해공항에서 미리 빠진다는 이야기도 왕왕 듣고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 듀프리까지 하반기 인천공항 입찰에 참전하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 2014년과 2019년 듀프리의 국내 사업 전개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며, 국내 중견·중소 면세사업자들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글로벌 면세업체 1위였던 듀프리가 한국법인을 내세워 중소·중견 사업권을 따내자 ‘무늬만 중소기업’인 글로벌 자회사의 꿈수 진출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한 중견 면세업체 관계자는 “지난 입찰 설명회에 참여했던 대한항공씨앤디처럼 대기업도 자회사를 만들어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중소·중견면세 입찰에선 듀프리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나오면 이기 힘들다. 입찰 가격이 전체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나 되는 상황인데, 듀프리 측에서 돈으로 밀어붙이면 이기는 방법이 지금으로선 없다”고 우려했다.

김해지 기자 heyji@

경제 기록일지

평택 오션센트럴비즈 ‘세계 최대 항만지원 복합시설’ 인증

“전국 12개 신항만에 2040년까지 재정 16조819억 원, 민자 25조7734억 원 등 총 41조8553억 원을 투자해 부두 총 119선석, 배후부지 3956만㎡를 조성하고 연간 4억3000만 톤의 화물 처리시설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500개 기업을 유치하고 53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정부가 2019년 8월 발표한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2019~2040)의 주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계획만으로는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 우리나라 수출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해운물류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2024년까지 더 공격적인 신항

만건설기본계획 수정본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같이 세계적 수준의 해상 교통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항만 프로젝트에 나서자 항만지원 복합시설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지원 복합시설’ 타이틀을 가진 ‘평택오션센트럴비즈’는 초대형 지식산업센터로서 랜드마크를 넘어 월드클래스에 올라설 것으로 기대가 크다.

KRI한국기록원은 2022년 5월 ‘평택오션센트럴비즈’를 세계 최대 규모 항만지원 복합시설로 공식 인증했다.

당시 KRI한국기록원은 “주식회사 골드랜드제이앤제이는 경기도 평택시 포



승읍 만호리에 대지면적 40만663.60㎡, 연면적 23만8257.24㎡, 높이 178.85m 지하 2층~지상 40층 규모의 항만지원 복합시설을 건설 중에 있어 이를 골드랜드제이앤제이와 대우건설 간 체결된 공사 도급 계약과 엔지엘의 시장조사보고서, 평택시 건축허가를 기반으

로 시행 중인 세계 최대 규모 항만지원 복합시설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오션센트럴비즈는 초대형 지식산업센터로 제조형, 스마트형, 업무형 등 각각의 업무 유형에 맞춘 사무공간을 갖춰 다양한 기업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제조형 공장이,

지상 5층~39층에는 석션형과 스마트 공장이 들어선다. 대규모 물류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10만2000㎡ 규모의 이케아 복합물류센터가 조성되고, 신세계건설은 투자 금액만 1497억 원에 달하는 ‘평택포스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Sound of the Future

2nd Anniv.

더현대 서울 디지털 리포트 Vol.2

분야를 망라한 321개 팝업 스토어, 한정판 공간의 의미를 풀어낸 2년간의 기록

THE HYUNDAI

더현대 서울, 가장 현대적인 랜드마크가 되다.

1	글로벌 아티스트 다비드 자맹展 역동적인 터치로 그려낸 오리지널 유화 150여 점의 대규모 개인전	6F ALT.1 2.4 - 4.27
2	K-아이콘 에스파 1st 팝업 'Come to MY illusion' 글로벌 아이돌 에스파의 환상적 공간 경험과 콘텐츠	5F 사운즈포레스트 2.24 - 3.5
3	레고 BTS Dynamite 팝업 스토어 초대형 레고 BTS 콘서트 디오라마와 체험 이벤트	5F 사운즈포레스트 3.7 - 3.27
		2주년 행사 자세히 보기
현대백화점그룹 현대백화점 현대아울렛 현대백화점면세점 더현대닷컴 현대홈쇼핑 현대H몰 현대그린푸드 한성 더현대닷컴 통합멤버십 H.point 현대리바트 현대L&C 지누스 현대렌탈케어 현대드림투어 현대어린이책미술관		

특별법 발표에도 시장은 냉랭... “지역별 추가 대책 필요”

뒀 올린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최대 500% 적용에 반색
사업 발목 초과이익환수제 여전
특별법 국회 통과 여부도 장애물

아파트값 오히려 0.05% 떨어져
법재연 “단지별 사업 진행” 요구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이기도 했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붙으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지자체와 주민들은 특별법에 관해 긍정적이라면서도 지역·단지별 특성이 다르고, 이해관계도 복잡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업성의 발목을 잡는 초과이익환수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여소야대 상황 속 법안 통과 여부도 주요 장애물로 꼽힌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내놓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해당 법안에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 계획도시를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로 정의하고,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이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정비구역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완화,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그간 1기 신도시 개발이 불가능했던 것은 용적률 때문이었다. 1기 신도시 용적률은 구체적으로 현재 △일산 169%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



중동 226%로, 대부분 상한을 채운 상황이라 사업성이 좋지 않았다. 이번 특별법에는 종 상향 수준으로 용적률을 완화해 주기로 해 이론적으로는 최대 50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이러한 완화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지역·단지별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추가 대책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기 신도시 법재건축연합회’ (이하 법재연)는 지난달 17일 입장문을 내고, 개별단지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정비예정구역 개별단지 안전진단 완화·면제 △개별단지 조건 충족 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통합사업 진행 어려울 시 구역 해제 없이 개별단지로 사업 존속 등이다.

최우식 법재연 회장은 “특별법 제정에 한 걸음 나간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블록별 통합 재건축을 해야만 특례 및 지원을 한다는 것은 주민 사유재산권 행사의 선택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특별법 자체에 대한 장애물도 있다. 바로 국회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협의가 불가피하다. 또한 대규모 특례를 부여하는 만큼 일정 초과이익에 대한 적절한 환수 방식도 논의해야 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협의와 법안 통과 여부는 관련 사업에 변수 및 쟁점”이라며 “특

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의 적정 수준에 관한 논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특별법 발표 직후에는 개발 호재 기대감이 반짝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특별법 발표 직후인 지난달 17일 기준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전주(-0.08%) 대비 0.05% 떨어지면서 하락폭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분당은 -0.06%에서 -0.03% △일산은 -0.06%에서 0.00% △산본은 -0.13%에서 -0.03%로 각각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하락거래가 이어지면서 단순히 특별법만으로는 가격이 상승반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향촌현대 5차 전용면적 59㎡형은 이달 7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 직전 거래였던 지난해 7월 8억 원과 비교하면 8000만 원 하락한 것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우성아파트 전용 164㎡형은 이달 18억2000만 원에 팔렸다. 직전 거래인 지난해 3월 20억 원 대비 1억8000만 원 내린 셈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최근엔 다시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서 가격 약세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재건축 유턴? ... 고민 빠진 리모델링 단지

사업 선회 놓고 갈등 조짐

“특별법에 재건축이 혜택 더 커”
사업 진척 속도 따라 선택 복잡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함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일부 조합에서는 재건축으로 사업 선회를 주장하면서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여러 혜택을 담은 특별법이 발표되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선택이 복잡해지고 있다. 한국 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는 136곳으로 6월(131곳)과 비교해 5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업계에서는 2020년(58곳)과 2021년(94곳)에 증가세를 보여왔던 리모델링 사업이 정체기를 맞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마을 14단지에선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을 요구하며 리모델링 반대 동의를 모으고 있다. 단지 인근 D공인 관계자는 “아직 안전진단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재건축으로 선회해 혜택을 보자는 입주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사업 진척 속도에 따라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기 어려운 단지들은 리모델링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평촌 목련마을 2단지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2008년 안양에서 처음으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한 지 10여 년 만에 결실을 보는 듯했는데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미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 우리 단지처럼 이미 승인 난 단지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아닌 단지들은 방향을 선회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면 사업 지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폐지를 하는 것이 옳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1주택자에 한해서라도 100% 감면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는 대체로 법적 용적률 상한을 채운 상황이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일반분양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이동욱 기자 toto@



미국주식 거래 아침 10시까지 자유롭다!

업계 최초! 미국 애프터마켓 거래시간 4시간 제공

바쁜 출근 시간에도 2시간 더 여유 있게 매매할 자유!
미국 주식, 제대로 하시려면 나무를 시작할 때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22-03373(2022.10.12~2023.10.11)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주식)에 대하여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한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주식)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주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해외 주식 거래 시 수수료는 0.25%(미국, 온라인 기준, 국가별 상이), 수수료 외에 미국 주식 매도 시 SEC Fee 0.00051%가 부과되며(국가별 상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amuh
나무증권

수출·내수 꽉 막힌 韓경제… 中 리오프닝 기회 잡아야

韓 대중수출 급감하며 무역적자 가중
추경호 “中 경제재개 효과 시간 필요”
“관광객 확대로 내수경기 개선” 방침
전문가 “정부 전략외교 취할 때” 지적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상황을 전한 뒤 한 발언이다. 위기에 봉착한 우리 경제의 반등을 위해선 중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달 초 열린 ‘2023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에서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무역적자가 점차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인 바 있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대중(對中) 수출 급감은 전체 수출 감소는 물론 무역적자를 가중시켜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501억 달러)은 1년 전보다 7.5% 줄면서 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

갔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 수출은 24.2% 감소해 9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대중 수출이 대폭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대중 수출 감소와 에너지 수입 증가 여파로 지난달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53억 달러 적자를 냈다. 12개월째 적자행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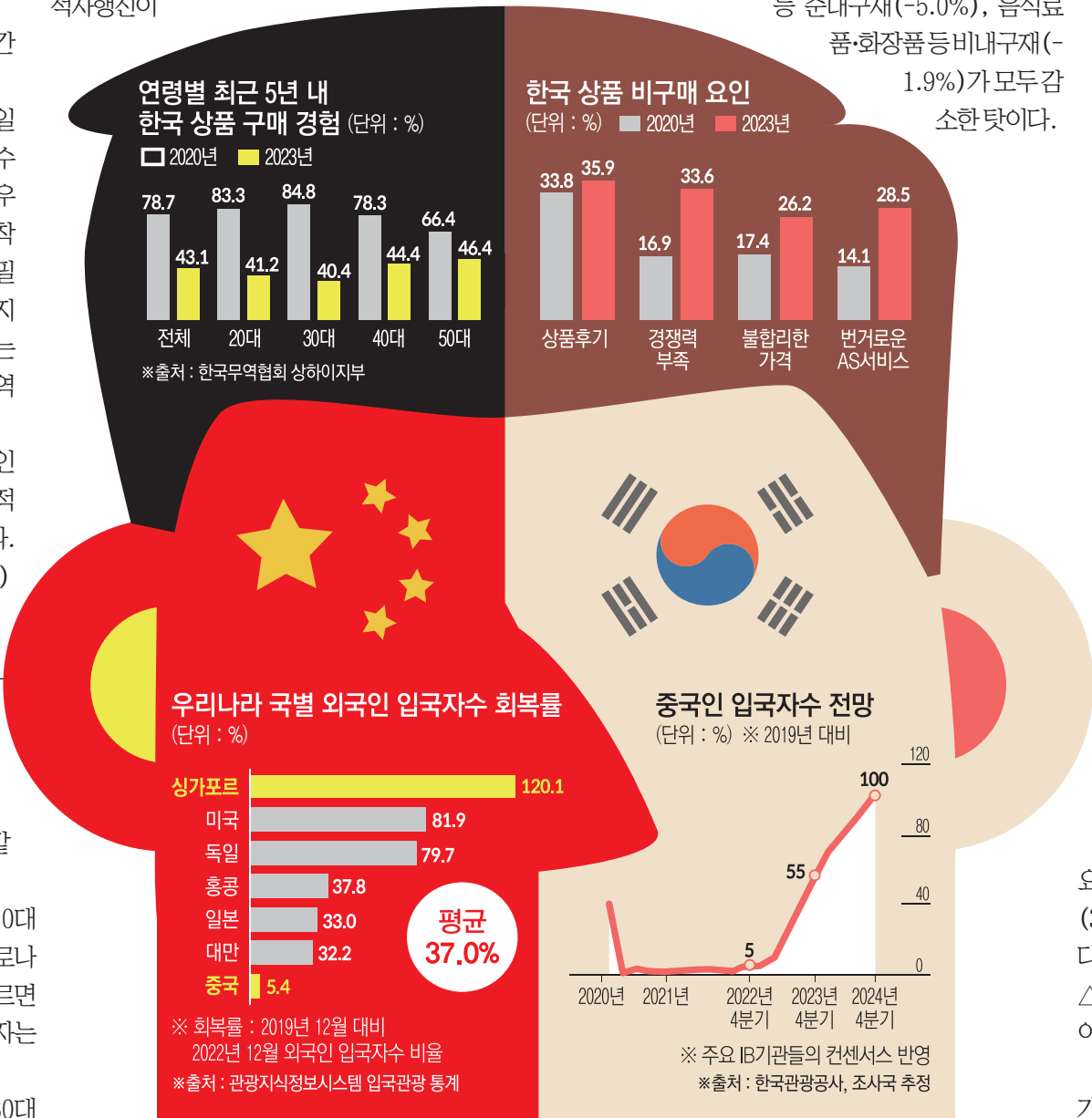
다. 대중 무역수지만 11억4000만 달러 적자다.

정부는 또 중국인 관광객 확대를 통해 침체된 내수 경기를 개선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비는 부진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2.1% 줄어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승용차 등 내구재(-0.1%)와 의복 등 준내구재(-5.0%), 음식료품·화장품 등 비내구재(-1.9%)가 모두 감소한 탓이다.

전 세계적으로 씬 씬이가 가장 큰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많아지면 내수 경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중순 중국발 입국자의 검역조치 완화를 시작으로 한·중 항공편 증편과 페리 운항을 조속히 재개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조기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우리 경제는 중국 경기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성장이 1%포인트(p) 낮아지면 우리나라 성장률도 0.1~0.15%p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에 외친 ‘탈(脫)중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순방에 동행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기자들에게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동맹국과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전문가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과의 관계를 단칼에 끊어버리는 건 쉽지 않을 일”이라며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도 중요하지만 한·중 우호 관계도 놓칠 수 없다. 양국 사이에서 국익을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외교를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자국소비 맛 들린 中 ‘K불매’ 심상찮다

中 봉쇄 이후 韓제품 소비 급감… 이미지 제고 ‘新대중 수출전략’ 절실

좋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중국 소비자가 가장 많이 구매한 한국 상품은 △미용 제품(58%) △식품(55.5%) △의류(45.2%)로 2020년과 유사했다. 반면 △영유

아제품(29.2%) △주방용품(19.3%) △의료건강 제품(14.4%)의 구입은 증가했다.

무협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의료 및 건강제품의 소비

가 증가했고, 코로나 봉쇄와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자택 내 소비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는 △상품 후기(35.9%) △국가 이미지(34.6%) △경쟁력 부족(33.6%) 등 순으로 집계됐다. 2020년과 비교하면 △한국 제품의 경쟁력 부족 △번거로운 애프터서비스(AS) △불합리한 가격 등이 원인이라고 답변한 구매자가 크게 증가했다.

중국 소비자는 상품 구매 시 △품질(24.7%) △가성비(16.9%) △브랜드(16.2%)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상품 대신 중국 상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8.2%를 기록했다. 한국 상품을 대체할 국가로 △유럽(17.3%) △미국(14%) △일본(10.5%)을 지목했다.

무협은 우리 기업은 코로나19로 달라진 중국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중 수출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진출 기업이 제품을 다변화하고 현지화 마케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정부·관계기관의 관심과 지원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다솜 기자 citiz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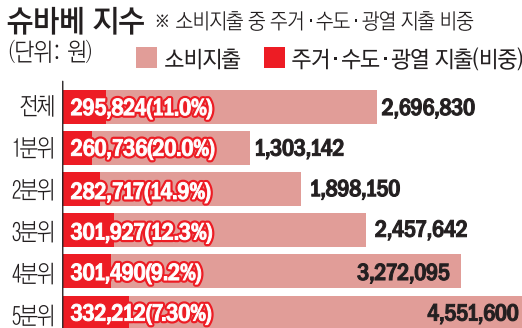
주거비 급증한 저소득층, 결국 끼니 줄였다

전월세·공공요금 인상에 슈바베지수 악화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면서 식비를 줄이는 저소득층이 늘고 있다. 전·월세 등 임차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전기료, 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영향이다. 여기에 식료품 물가 상승세까지 이어지자 저소득층은 먹거리 소비를 줄여 가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본지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을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10~12월) 소득 1분위의 월평균 주거·수도·광열 지출은 26만736원으로 전체 소비지출(130만3142원)의 20.0%에 달했다. 전체 소비지출에서 임대료 및 수도 광열 지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구의 생계비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슈바베 지수’로도 불린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에 속해 있는 1분위의 슈바베 지수는 전체 평균(11.0%)을 크게 웃돌았다. 상위 20%인 5분위의 경우 월평균 주거·수도·광열 지출이 33만2212원으로 1분위보다 많았지만, 소비 지출(455만5160원) 규모가 1분위보다



크기 때문에 슈바베 지수는 7.3%에 그쳤다. 주거비 부담은 똑같이 늘었지만,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빠듯한 저소득층의 타격이 더욱 큰 셈이다.

슈바베 지수와 함께 빈곤의 척도를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엔젤 지수’는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다. 엔젤 지수는 가계 전체 소비지출 중 식료품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소득 1분위의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 비중은 지난해 4분기 21.1%를 기록했다. 2020년 4분기(23.5%)와 2021년 4분기(22.9%)에 이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정대한 기자 vishalist@

금감원 떠나는 회계사들… 10년 만에 첫 감소

신외감법에 몸값 ↑ … 법인 감리 약화 우려

정부가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회계법인의 비위를 감시하는 당국의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新)외부감사법(신외감법)’이 도입되면서 회계사의 몸값이 치솟자, 금융당국이 아닌 회계법인을 택하는 사람이 늘면서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직원 중 회계사 자격(미국 공인회계사 포함)을 가진 인원은 415명이었다. 그간 회계 시장이 커지면서 금감원 회계사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평균 4.09% 늘었으나, 지난해는 전년보다 3명 감소했다. 최근 10년 중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이다.

같은 기간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의 등록 회계사는 6844명에서 458명 증가한 7302명을 기록했다. 업계 1위인 삼일회계법인에서만 금감원 인원의 절반 수준인 260명이 증가했다. 회계사 수와 회계법인 매출의 정비례 관계를 만든 신외감법 도입 때와 비교하면 금융당국과 회계법인의 증가 추세는

더 차이가 났다. 2018년(5913명)과 비교해 지난해 4대 회계법인의 등록 회계사 수는 1389명(23.49%) 늘었으나, 금감원은 21명(394명→415명, 5.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외감법으로 회계사의 몸값이 치솟으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사실상 금융위원회로부터 예산을 통제받아 월급을 회계법인만큼 올리기 쉽지 않다. 2021년 공인회계사 신임직원의 초봉은 4951만 원으로, 4대 회계법인의 5000만~6000만 원에 못 미친다. 또 각종 수당을 포함해 회계법인에선 5년 차에 역대 연봉이 가능하나, 금감원에선 15~17년 차(3급)가 돼야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다.

회계사들의 당국 이탈이 심화하면 금감원의 회계법인 감리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김경을 회계사는 “회계사는 숫자에 밝은 사람들이라 처우에 따라 쏠리는 경향이 있다”며 “금감원의(회계감리1·2국, 회계관리국, 감사인감리실) 업무는 회계사들이 하는 게 맞는데, 계속 빠져나간다면 (향후 감리 부실)을 우려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문수빈 기자 bean@

국내 신약 R&D 산실... 상용화 전주기 원스톱 지원 ‘강점’

①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혁신도시. 고속철도(KTX) 동대구역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인 이곳엔 국내 신약 연구·개발(R&D) 중심지로 육성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첨복단지)가 자리잡고 있다. 총 105만4000㎡ 규모로 조성된 대구첨복단지에는 현재 17개 연구기관과 83개 기업이 입주했다. 2009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선정되면서 제약·의료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기 위해 국가 주도로 만들어진 바이오클러스터로, 케이메디허브가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바이오클러스터 생태계 구성. 지식성과=케이메디허브는 합성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사업화의 전주기를 원스톱 지원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개별 기업이 보유하기 어려운 기술과 인프라를 갖춰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신약이나 의료기기의 개발·상용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15개 시·도에 25개의 바이오클러스터가 있지만, 케이메디허브는 제약·바이오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신약 R&D의 산실 기능을 확보하고 있던 점에서 차별화된다. 약 600종의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그동안 급성골수성백혈병, 뇌암, 간암, 치매, 알츠하이머 등의 치료물질 기술이 전 성과를 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9월 3800억 원 규모로 미국 브리젠타이오 테크에 기술수출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다. 케이메디허브가 후보물질을 개발, 2017년 보로노이에 기술을 이전했다.

케이메디허브 연구진은 의학화학분야 권위자 저널 오브 메디시널 케미스트리

연구기관 17곳·기업 83곳 입주 뇌암·치매 등 치료물질 기술이전 의학 권위지에 3년째 논문 실려 지역 거점대·병원·연구소 협업 공공기관 첫 GMP 인증 획득도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에 국내 최초로 3년 연속 표지 논문을 게재했다. 연구 인력은 해마다 늘어 400여 명에 달한다.

대구첨복단지는 바이오클러스터의 구성요소인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산·학·연·병)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다. 대다수 바이오클러스터가 기업 중심인 반면, 이곳은 경북대와 계명대 등 지역 거점 대학과 한국뇌연구원, 3D융합기술지원센터,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등 연구소, 경북대 병원을 비롯한 다양한 병원이 모여 있다.

◇후보물질 발굴→상용화 원스톱=케이메디허브의 핵심 연구시설은 △신약개발지원센터 △전임상센터 △의약품생산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다. 지하1층 지상 9층 규모의 신약개발지원센터는 1300여 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화합물 탐색과 선도물질 최적화를 지원한다.

분자설계, 단백질 구조분석, 의약품성, 유효성·안전성 평가 등 전반적 기술 지원이 가능하다. 플랫폼 기술 개발, 위탁 R&D,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의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사업도 맡고 있다. 신약 개발 필수 요소인 동물실험 인프라도 갖췄다. 체장암·뇌암 등 200여 종의 질환 모델동물 제작기술을 보유해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전임상 시험을 할 수 있다.



케이메디허브는 공공기관 최초로 우수 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인증을 획득, 의약품생산센터에서 독자 생산시설 운영이 어려운 제약사나 연구기관을 위한 의약품 생산·공급한다. 최소 1kg 단위의 소량 제조가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임상시험

용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IT 기반 융합 진단·치료기기 제품화를 이끌고, 의료기기 시제품 제작과 심사평가를 지원한다. 집속초음파 치료·진단기기, 뇌파분석 진단·치료기기, 약물 주입장치 상용화가

주요 성과다. 올해는 경북대병원이 운영을 맡는 첨단임상시험센터가 문을 연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케이메디허브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연구소, 인근의 대형 병원과 지역 거점 대학 등 바이오생태계가 구축돼 10여 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성숙한 환경을 토대로 각 기관 간 공동 연구 및 협업을 통해 기술이전 등 성과가 꾸준히 나오는 점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도 정조준한다. 케이메디허브는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아랍헬스2023’에 대구테크노파크와 공동관을 마련해 처음 참가했다. 공동관은 300억 원 규모 수출계약을 달성했고, 이 중 대구기업 11곳이 222억 원을 올렸다. 7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글로벌 의료기기박람회 ‘코아멕스(KOAMEX)’를 개최하고, 9월엔 제주에서 의료기기 기업 비즈니스 행사 ‘메디텍’을 열기 위해 5개 공공기관과 협력 중이다.

대구=유혜은 기자 euna@

“바이오클러스터 난립...컨트롤타워 필요 경쟁 대신 인프라 갖춘 대구단지 지원을”

인터뷰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

“대한민국이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산업을 선택했다면 난립한 여러 바이오클러스터를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조정·관리·지원할 수 있는 핵심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양진영(사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국내 바이오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한 정부 주도 구심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클러스터의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상생과 집중을 통해 산업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바이오클러스터들이 미국 보스턴을 롤모델로 삼고 있지만,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제약·바이오산업의 역량이 분산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다.

양 이사장은 “첨복단지 조성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한국은 국제 의료시장에서 1% 남짓한 시장만 차지하고 있다. 전체 파이를 키우지 못하고 예산을 쪼개면 미국과 유럽은 커녕 일본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연구·개발(R&D)은



나눠 가질 것이 아니라 뭉쳐서 파이를 키워야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합리적으로 예산과 과제를 배분할 수 있고, 기관 간 연협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케이메디허브는 신약개발의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인프라를 완비한 상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인력 교류를 통해 인허가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양 이사장은 “신약 연구개발을 지원할 국가기관을 만들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공 확률을 낮추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바이오클러스터들을 이끌 헤드쿼터가 없어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R&D에 특화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만의 경쟁력도 역설했다. 그는 “대구 R&D를 지원하는 국가기관 없이 대기업 중심 생산시설이 입주한 산업단지형 클러스터인 송도와 차별화된다”면서 “정부 바이오클러스터 간 경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신 완성된 인프라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구=유혜은 기자 euna@

시대를 앞서 가는 시선

앞만 바라보는 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큰 그림을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한화생명의 시선은
모든 방향으로 향합니다



www.hanwhalife.com

<둘째날 47.51%>

또 최고 투표율… 내심 불안한 金, 조용히 웃는 安·千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38 전당대회 당일 투표가 진행 중인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직자가 모바일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대 ‘역대급 흥행’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가 예상치 못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침묵하던 다수의 반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 대표 후보들마저 “당심의 폭발”이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다.

5일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당대회 2일 차 최종 투표율이 47.51%(83만7236명 중 39만7805명 투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투표 첫날인 4일 투표율이 34.72%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또다시 신기록을 세웠다.

정치권에서는 “결선투표행은 상수가 됐다”라는 해석이 흘러나온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각 후보들의 뒷심이 세지 않다”며 “김기현 후보도 윤심이 셀 뿐이지 자신의 화력을 가지고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50%를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여론 관계자는 “투표율이 높아지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예선전에서 (한

투표율 높을수록 결선행 가능성 金, 여론조사 과반 넘은 적 없어

모바일 투표 ‘젊은층 결집’ 분석 安·千, 누가 2위 될지 이목 집중

‘60대 이상’ 선거인단 42% 차지 “金조직력 탄탄, 속단 일러” 의견도

후보가) 50%를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김 후보가 선두를 달려왔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에서 과반 득표를 얻은 적은 없다. 김 후보가 다자 대결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지난 달 27일 조원씨애포가 조사에서도 그의 지지율은 49.3%에 그쳤다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선투표는 ‘친윤’ (친윤석열) 대 ‘비

윤’ (비윤석열)의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1강 3중’의 판세를 보여줬던 만큼 김 후보의 결선행은 정해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2위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수평적 당정관계가 돼야지, 일방적 관계가 되면 되겠냐”는 침묵하는 다수가 투표했다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갔을 것이라 본다”라면서도 “젊은 당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 천하람 (후보)을 밀어주자 해서 투표율이 올라갔다면 천 후보 득표율이 올라갔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2위권 후보인 안·천 후보는 이미 친윤 (친윤석열)계에 각을 세우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과 몇몇 사람이 당과 당원을 존중하지 않고 수직적 관계로 만들려고 한다”, “왜 대선에 공이 있는 사람을 적으로 몰아 내치고 있냐”고 말하며 대통령실을 직접 겨

냥했다. ‘친이준석계’ 전 후보는 그간 합동연설회 등 공개석상에서 계속해서 “윤핵관을 몰아내고 국민의힘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어느 쪽이 더 결집하느냐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안 후보 혹은 천 후보가 결선에 올라갔을 때 표심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 프랑스의 에마누엘 마르롱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대선 당시 1차 투표에서 상대 후보였던 마린 르펜과 4.7%포인트 차이가 났지만, 2차 결선에서는 중도를 지향하는 표심이 마르롱 대통령에게 쏠리면서 르펜을 17.08%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4~5일 모바일 투표에 이어 6~7일 전화 자동응답(ARS) 투표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젊은 층이 다수 결집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 선거인단 중 60대 이상 비율이 42.04%에 이른다는 점을 따져보면, 김 후보의 조직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전망도 강하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격주 재판에 당무 차질 불보듯” ‘李퇴진론’ 군불 지피는 비명계

민주당 ‘이탈표 사태’ 내용 격화

“李 방탄프레임서 벗어나야” 공세 개딸은 당사 앞 대규모 ‘맞불집회’ 친명 vs 비명 ‘계과 갈등’ 최고조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탈표’를 둘러싸고, 당내 친명 (친이재명)계와 비명 (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격주마다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사법 리스크’도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몸을 바짝 낮췄던 비명계도 ‘당무 차질’을 고리로 이대표 퇴진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대표는 당장 선거법 사건만으로도 최소 격주에 한 번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달 17, 31일과 다음달 14, 28일 재판 일정이 잡혀 있다. 이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그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 내홍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비명계는 친명계의 ‘조직적인 이탈표’ 주장을 일축하면서도 ‘이재명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명계가 오는 7일 ‘민주당의 길’ 토론회를 재개하면서 이대표의 거취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 표결 이후 처음 열리는 의원 총회는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현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 내홍은 지지층 간 갈등으로 번졌다. 이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제기한 “이낙연을 영구제명하라”는 청원의 동의 인원

수는 6만5000명을 넘어섰다.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등이 모인 민주당 강성 지지단체는 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 사 앞에서 ‘수박 깨기’ 집회를 열면서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뜻으로, 이대표 측 지지자가 비명계 인사들을 비난할 때 쓰는 표현이다.

그러자 비명계도 이재명 대표의 사퇴 및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면서 맞불 공세를 폈다. 청원인은 3일 “팬덤정치로 잘못된 방향으로 당의 앞날이 좌우되고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사당화로 변질되고 있는 작금의 민주당은 합리적 목소리가 함께하는 공당이 아니”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낙연 전 대표의 영구제명 요청과 관련, “당 대표의 신상 문제로 갈등하는 상황을, 왜 저 멀리 있는 미국에 있는 전 대표 탓으로 돌리냐”라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경선 과정에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한다는 검토안은 당 내홍에 기름을 부었다. 당 정치혁신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 포함 지역위원장을 평가하는 당무감사 항목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마련했다. 당 지도부 선출 시 권리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향후 공천 심사나 지도부 구성이 개딸에 의해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좋은 건강은
좋은 잠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면의 질 개선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바이탈뷰티 굿슬립가바 365’로
달콤한 꿀잠, 개운한 아침을 만나보세요.

아모레퍼시픽이 만든 수면 건강기능식품

■ 기능성 원료인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의 인체적용시험결과 지표

총 수면시간(분) 대조군 변화량 대비 280% 증가
- 섭취 전 대비 대조군 14.25분 감소(-3.93%),
시험군 25.72분 증가(13.18%)

입면 후 각성시간(분) 대조군 변화량 대비 200% 감소
- 섭취 전 대비 대조군 10.25분 증가(37.94%),
시험군 10.20분 감소(5.45%)

입면시간 (min)

60
40
20
0
-20
-40
-60

대조군 시험군(가바)

입면 후 각성시간 (min)

60
40
20
0
-20
-40
-60

대조군 시험군(가바)

*출처 : 유산균발효 GABA(L-aminobutyric acid) 분말의 경증 단기 수면장애를 갖는 사람에서 수면의 질 개선 효과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placebo 대조 병행 설계인체적용시험 / 시험번호 : AP-V-2018-01 (시험기관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 섭취대상 : 수면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식약처로부터 2중 기능성을 인정받은 맞춤 배합!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나이아신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굿슬립가바 365, ‘가바’란 무엇인가요?

아모레퍼시픽은 뇌 조직의 수면 관련 물질, 가바(GABA, gamma-aminobutyric acid)를 연구하여 외부에서 보충할 경우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L-글루탐산 발효 가바분말은 유산균 발효를 통해 수면과 관련된 가바와 동일한 구조로 제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면의 질 기능성을 인정받아 매일 꾸준히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이 특별한 이유!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인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의 인체적용시험 결과 총 7가지 지표 [수면 효율/수면 잠복기/총 수면 시간/비렘수면 3단계/총 각성시간/입면 후 각성/피츠버그 수면의 질 평가설문지의 총점 및 세부항목(수면 잠복기 변화량 감소의 수면 효율)]에서 유의적 개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VITALBEAUTIE

*제조원 및 유통전문매점 : (주)아모레퍼시픽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본 제품은 주요 온라인몰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비즈니스 하기 좋은 세상!
원비즈플라자전자구매부터 금융서비스까지 한 번에 이용하는
국내 최초 공급망 금융 플랫폼을 만나보세요**WON BIZPLAZA** 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전자구매서비스

품목관리/구매요청 전자계약/발주, 정산/미납
협력사 리스크 관리 대외기관 연계(국세청/SG)

금융서비스

매출기반 결제성 여신(B2B 등) 협력사 전용 운전자금 대출
정책기관 연계 금융상품

경영지원서비스

실시간 원자재/시장 상황 공급망 ESG(탄소배출관리)
전문가서비스(법률/세무) **우리은행**

※ 접속방법 : [HTTPS://WWW.WONBIZPLAZA.COM](https://www.wonbizplaza.com) ※ 원비즈플라자는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일부 서버점검 등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윈도우 10(Windows10) 이상의 운영체제와 크롬(버전 100이상), 마이크로소프트 Edge(버전 99이상)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권장 해상도는 1280×1024 입니다. ※ 원비즈플라자 상담센터: 1533-4500(상담시간: 평일 09:00~18:00) ※ 일반금융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상담: 우리은행 고객센터 1588-5000(이용시간: 평일 09:00~18:00) ※ 2022.11.23 준법감시인-10474 심의필(유효기간: 2023.12.31) 담당부서: 기업금융솔루션부



150척 한자리에 ...‘경기국제보트쇼’
경기국제보트쇼가 열린 5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보트를 살펴보고 있다. 올해로 16회째인 이번 행사는 3만여㎡ 규모의 전시장에서 세일링 요트와 고무보트, 경기요트 등 150여 척의 선박을 선보인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우즈벡 수출길 다시 열렸다 韓가전 규제완화 협상 성공

정부 무역기술장벽 신속대응반
‘에너지 등급 상향제’ 개정 요청
“각국 탄소중립 규제에 총력 대응”

막힐 뻔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중
동 아시아 수출길이 다시 열릴 전망이다.
연 300억 원 규모의 가전제품 수출국인
우즈베키스탄이 에너지효율 규제를 완화
하기로 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은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통해 1일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현지
양자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
해 수입·내수 제품 간 규제 차별 완화와 시
행유예를 요청했다.

협상 결과 우즈베키스탄 측은 규제 개
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개정 때까지

국내 기업 수출제품의 통관이 다시 이뤄
진다.

앞서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12월 수
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을 2
단계 이상 상향하는 등 규제 강화 내용을
발표했다. 사전 통보와 유예기간이 없이
이뤄져 국내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가전제
품 수출 자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지만,
이번 조치로 한숨 돌리게 됐다.

우즈베키스탄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제품이 연 300억 원 규모로 수출
되는 곳이다. 현지에선 삼성전자와 LG전
자 등 한국 가전제품이 인기를 끈다. 러시
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우즈베키스탄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일부 기업이 생산공
장 건설까지 검토에 나선 상태다.

국표원은 2일엔 우즈베키스탄 기술규
제정을 방문해 WTO TBT 중앙사무국

으로서 경험을 공유하고 유사 규제 도입
에 선제 대응하려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은 WTO 비회원국이라
정보수집과 자체 대응이 어렵다. 국표원
은 우즈베키스탄이나 인도, 멕시코 등 기
술규제 도입 증가로 기업 애로가 늘어나
는 국가를 대상으로 양자 회의나 현지 간
담회 등 해외 기술규제 협력을 확대할 예
정이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국제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 산업과 경제
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탄소중립
관련 TBT는 더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
로도 TBT 신속대응반을 적재적소에 파
견해 애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수출
플러스 전환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상 기자 jooon@

주민등록·실거주 불일치 ‘위기가구’ 4600명

‘수원 세모녀 사건’ 재발방지 위해
2400만가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거주지 불일치 총 7만7000건
거주불명 등록 등 130만건 수정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지
원을 받지 못해 벌어진 수원 세모녀 사
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민등
록 정리 작업을 실시했다. 약 130만 건
을 정리했고, 그중 실거주 불일치 사례
7만여 건을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약 2400만 가구
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
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12월 30
일까지 이뤄졌다.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의 전입신고,
행정기관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등으
로 총 129만792명의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됐다. 이 중 125만8174명은 주민
의 신고 등으로 정리가 이뤄졌고, 3만
2618명은 이·통장의 협조를 받아 행정
기관에서 직접 정리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7만6972건이 발견돼 조
치를 완료했다. 이 중 주민등록은 돼
있지만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6만
7477건이고, 실거주하지만 주민등록
이 돼 있지 않은 경우는 9495건이었
다. 특히 이번 조사는 복지취약계층 포
함 가구, 사망의심자 포함 가구,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가구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보건복지부는 단전·단수 등 위기 정
보로 확인된 복지 위기가구 중 1만
7429명의 조사를 요청했고, 이들에 대
한 주민등록지 방문을 통해 실거주 여
부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1만7429명

중 4643명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사항이 발견됐고, 조사 내역은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복지 사
각지대 발굴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사망의심자 포함 가구 조사를 통
해 사망의심자 38만9158명 중 38만
5912명(99.2%)이 사망발소 처리됐
다.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583명 중 해외체류, 재택교육(홈스
쿨링) 등의 사유가 확인된 1577명
(99.6%) 외에 확인이 불가능한 6건은
112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
다.

최훈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은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
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등
국민 행복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
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지방권력 토착비리 파헤친다

정부, 지자체 100일 특별감찰
개발 특혜·소극 행정 등 점검

행정안전부는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6일부
터 6월 16일까지 시·도와 합동으로 지방
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특별점검단은 행안부에서 4개반 12
명, 16개 시·도 지자체의 자체점검반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행안부는 지자체
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개
입 등 고위 공직자비리, 불공정 특혜제공
등 지역 토착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
이다.

이권 개입 비리의 경우 고위 직위를 이용
한 채용 청탁 및 학연 등을 이용한 부당 채
용, 각종 사업에 특정 업체 선정 강요 등 부

당한 이권 개입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또 토착 세력과 유착된 부당한 개발행
위 및 건설·건축현장에서의 토착비리, 사
적 이해관계자에게 각종 특혜 제공, 공직
자와 유착 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보조금
편법 지원 및 금품·향응 수수 등도 집중 감
찰한다. 아울러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과
도한 규제 및 갑질 행위, 민원발생을 이유
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소극행정,
근무지 무단 이탈, 출장 중 사적업무 등 복
무규정 위반 등도 점검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
중 문책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
직자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직자의
부패 행위, 공직기강 해이 등의 비위에 대
해 국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공직부
패 익명 신고방’을 운영 중이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고기용’ 송아지 키우면 5만원 지원

사료비 상승·한우값 하락에 거래 폭
육우산업 촉진 위해 1만마리에 지급

사료비 상승과 한우가격 하락 등으로
송아지 거래가 감소하자 정부가 입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 마리에 5만 원씩 모
두 1만 마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가 젖소 수
컷 송아지를 육우용으로 입식하면 우유자
조금과 육우자조금을 통해 마리당 5만 원
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젖소 송아지
의 경우 수컷은 우유를擠 수 없기 때문에
고기용으로 길러진다. 주로 육우를 전문
으로 키우거나 한우를 키우는 농가가 이
송아지를 입식해 키운다. 낙농가는 송아
지를 판매해 우유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
를 가져온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육우용
젖소 송아지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과 환율에 따른 사료비 상승, 한
우가격 하락에 따른 육우가격 동반 하락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젖소 송아지 가
격도 떨어졌다. 평년 젖소 송아지 가격은
생후 1주일 기준 암컷 18만8000원, 수컷
36만9000원이지만 올해 2월에는 암컷 1
만3000원, 수컷 2만2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농가에서는 수입 감소의 어려움을 토로
했다. 육우산업에서도 생산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우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한 축산농가에서 젖소가
물을 마시고 있다. 정부는 육우용 젖소 송아지
를 입식하는 농가에 마리당 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뉴스스

유·육우자조금과 함께 육우용 젖소 수컷
송아지를 입식하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로 했다. 이번 육우용 젖소 송아지 입식 지
원은 암컷 송아지를 제외한 수컷 송아지로
제한하고, 총 1만 마리의 육우용 젖소 송
아지에 대해 마리당 5만 원을 지원한다.
우유자조금이 3월에 5000마리를, 육우자
조금이 4월에 5000마리를 지원한다.

입식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축산
물이력제 관할 위탁기관(지역 축협)에
지원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고, 육우용 젖
소 수컷 송아지를 입식한 이후 이력번호
이관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축산농가의
지원 희망 신청서 제출기간은 6일부터 1
주일이며, 신청자 수가 적으면 신청서 제
출 기간을 연장한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인공섬식’ 새만금신항 진입도로 연내 착공

새만금 신항 운영을 위한 진입도로가
연내 착공된다. 약 10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 말 완공하는 게 목표이며 새만금
산업단지를 연결하면 하루 화물차 2644
대가 통행할 수 있어 물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과 육지를 연
결해 항만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첫 도
로인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사
업’(이하 도로개설 사업)을 발주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새만금 신항을 새만
금지역 최대 국제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2조8231억 원을 투입,
자동차와 크루즈 각 1선석 등 대형부두 총
9선석 운영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잡하부
두 2선석 축조 본공사에 착수했다. 아울
러 진입항로 준설, 방파제 연장 등의 기반
인프라 확충도 추진 중이다. 새만금 신항
은 원활한 해수소통 등을 위해 새만금 방
조제 전면 해상에 국내 최초 인공섬식 형
태로 개발 중이다. 부두 운영을 위해서는
항만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량 형태의 진
입도로 확보가 필수적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中 추가제재 착수한 美… “韓, 반도체 수출통제 참여하라”

양자 컴퓨터·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투자 사모펀드 제재 검토
상업·군사 이중용도 물품도 포함
바이든, 내년 예산안에 반영 가다

CSIS “韓, 가치사슬 붕괴 막아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첨단분야에 대한 자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선 바이든 정부가 이미 마련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압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입수해 바이든 정부가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규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기술분야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보고서엔 “미국 투자자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중국 군사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한 소식통은 “고급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AI)에 대한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VC) 투자가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이

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새로운 규제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이와 관련한 자금을 요청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 상업용과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앞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이중용도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국무부의 지적과도 관련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미국의 대중 압박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지난주엔 바이든 정부가 인텔과 퀄컴 등 반도체 공급업체에 대해 중국 화웨이를 대상으로 하는 부품

수출 허가 취소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신규 허가를 중단하는 것을 넘어 기존 허가까지 취소하는 게 핵심이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5G 이하 기술을 화웨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시절 규정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는 추가 제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네덜란드가 동참한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한국도 함께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CSIS는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3자간

수출통제 협정은 세 나라 모두에 중요한 외교적 성과지만, 작업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한국을 거론했다.

CSIS는 “한국은 반도체 제조에서 선두 주자이자 작으면서 정교한 제조장비를 생산하는 국가”라며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가치사슬의 균열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의 새로운 수출통제 협정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세부사항이 불분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외교적 개입이 필요해 보이지만, 미국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데 참여한 국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은 다른 국가들에서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고대영 기자 kodae0@



시진핑 “리커창, 수고했어요”

리커창은 이날 총리로서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리커창은 이날 총리로서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베이징/AFP연합뉴스

“인재 잡아라”… 日, 남성 육아휴직률 공개 확산

내달 1000명 이상 기업 공표 의무화
채용 시너지… 中企도 자발적 공개

일본에서 남성 육아휴직률을 공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4월부터 직원 수 1000명이 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휴직률 공표가 의무화되는데, 이미 많은 기업이 공표에 나서고 있다.

5일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공표 의무화 대상 기업 약 4000곳 중 235개사가 이미 남성 육아휴직률을 공개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택건설업체 세키스이하우스와 닛폰생명보험 등의 남성 육아휴직률은 100%에 달한다.

이들 기업이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률 공개에 적극적인 이유는 인재 확보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일과 가정의 안정적 인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회사란 인식이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다.

2016년부터 남성 육아휴직률 공표를 시작한 다이세이건설 인사 담당자는 “공표가 채용에 힘을 실어줬다”며 “다른 기업

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이세이건설도 2017년 이후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서 남성 직원 육아휴직률이 100%에 이른다.

의무화 대상이 아닌 기업도 마찬가지다. 직원 수가 약 150명인 금속장식 제조업체 사카타제작소가 대표적이다. 휴직률 100%인 사카타제작소는 “정규직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육아휴직률 공표로 20, 30대 남성 인재 확보 길을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직률이 낮은 기업도 기업의 변화 방향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표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수한 육아휴직제도를 가진 국가 중 하나이나 남성 육아휴직률은 저조하다. 정부는 2025년까지 남성 육아휴직률 30% 달성을 목표로 하지만, 2021년 기준 14%에 그쳤다. 정부는 공표 의무화로 육아휴직 문화 개선을 앞당기려 한다. 의무 공표 대상 기업은 4월부터 자사 홈페이지나 후생노동성 사이트에 이를 게시한다. 이를 어기는 기업은 행정지도를 받게 된다. 정영인 기자 o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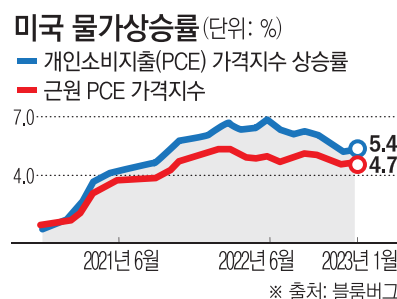
“빅스텝” vs “장기 긴축”… 고심 깊은 美연준

인플레이 지속·고용지표 호조 등
긴축 전망에 공감대 형성됐지만
향후 연준 행보 두고 의견 엇갈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힐 조짐을 보이지 않고 고용 지표도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이 긴축을 지속한다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연준이 취해야 할 긴축 행보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연준이 21~22일 개최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올리는 ‘빅스텝’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과 지난달처럼 ‘베이비스텝’(금리 0.25%p 인상)을 유지하되 긴축을 좀 더 길게 가져가면 충분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프린스턴 대 연설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끝내기 위해서는 긴축 정책을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지난주 열린 한 행사에서 “연준이 과도한 긴축보다는 과소 긴축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우리는 ‘빅스텝’에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3월 빅스텝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연준이 실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머스 전 장관은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와 임금 상승률 등이 완고하게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플레이션이 단기에 끝날 것이란 판단은 희망적인 생각에 더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준이 빅스텝으로 돌아가면 신뢰성이 훼손돼 오히려 시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

다. 연준은 작년 6월부터 금리를 4차례 연속 0.75%p 인상한 이후 12월 0.5%p, 올해 2월 0.25%p 인상으로 긴축 속도를 조절했다.

연준은 이번 주 발표될 경제지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주에는 2월 고용보고서와 1월 구인·이직 보고서(JOLT) 등 금리 결정에 중요한 지표들이 나온다. 시장은 연준의 경기 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 발표에도 주목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 증언을 앞두고 있어 그의 발언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월 의장은 7일과 8일 각각 상원, 하원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파월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나 인상 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두고 연준이 전날 공개한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는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는 데 매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통화정책이 충분히 제한적일 수 있게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영인 기자 oin@

실버게이트뱅크런 ‘후폭풍’… 비트코인 2주 만에 최저

작년 4분기 예금 유출액 81억달러
코인베이스·팍소스 등 거래 중단
글로벌 가상자산 유동성 악재 우려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에 이어 가상자산 거래은행 실버게이트캐피탈의뱅크런 위기에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실버게이트는 성명을 내고 자체 가상자산 결제 네트워크인 실버게이트익스체인지 네트워크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실버게이트는 “올해 채권을 추가로 손실 매각했다”며 “손실이 추가되면 자본금이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려가 지속함에 따라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실버게이트는 1일 ‘지속가능성’ 재평가를 이유로 연례사업보고서를 마감

시한까지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통보했다. 이후 코인베이스와 팍소스 등 주요 거래처들이 실버게이트와의 결제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발표하면서 불안감은 가중했다.

실버게이트는 주요 거래처였던 FTX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4분기 가상자산 예금 유출액만 81억 달러(약 10조5381억 원)에 달한다. 경제전문지 포춘은 실버게이트가 특정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규제 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통보받게 되며, 그 경우 90일 이내에 자본을 조달하거나 다른 은행에 매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여파에 비트코인 가격은 2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현재 2만2300달러 선을 횡보하고 있다. FTX 사태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올해 들어 30% 이상 상승했지만, 다시 변동성이 커졌다. 1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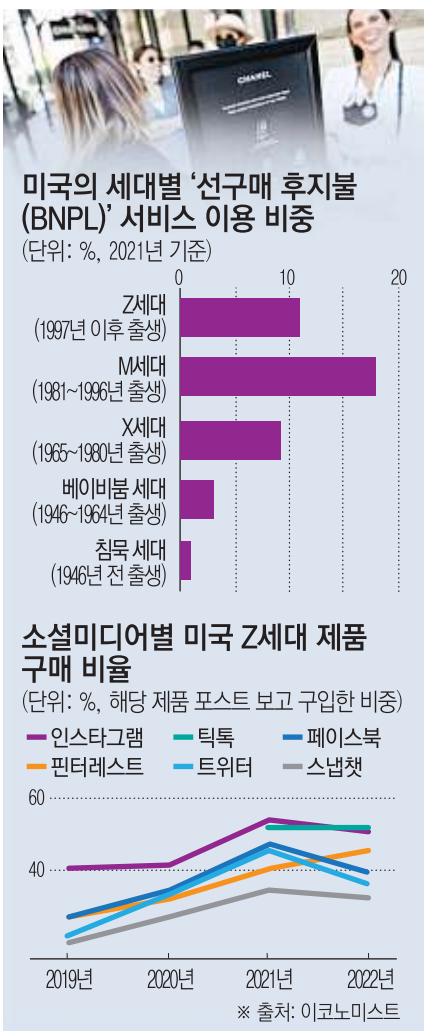
140달러를 웃돌던 실버게이트 주가도 현재는 5달러 선까지 추락했다.

전문가들은 실버게이트 사태가 가상자산에 또 다른 역풍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블록체인 정보업체 카이코의 클라라 리 서치 이사는 “가상자산 약세 요인은 확실히 실버게이트에서 진행 중인 문제 때문”이라며 “많은 대형 거래소가 실버게이트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던 터라 실버게이트의 운영이 중단되면 글로벌 가상자산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인디펜던트리지브의 존 토로 트레이딩 책임자는 “실버게이트는 가상자산 업계에 필요한 주요 달러 취급 은행 중 하나”라며 “실버게이트 유동성에 대한 모든 우려는 시장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부 펀드 접근성과 가용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지갑 얇아도 취향 확고”... 명품에 펄펄 쓰는 MZ세대



2021년 美 가계지출 30% 차지
금융위기·코로나19 등 거치며
“미래 대비하기보다 현재에 충실”

친환경 등 가치중심적 소비경향
SNS 통한 관심이 소비로 연결

‘MZ세대’가 전 세계 소비시장 변화의 주축이 되고 있다. 절대적인 숫자가 이를 말해준다. 유럽연합(EU) 역내에서만 만 10~34세의 인구는 약 1억2500만 명이고,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1억1000만 명의 MZ세대가 있다. 미국 MZ세대만 놓고 보면 이들을 주축으로 한 연간 가계 지출은 2021년 2조7000억 달러(약 3545조 원)에 달했다. 미국 전체 가계 지출의 30%에 달하는 규모다.

그렇다면 MZ세대 소비자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 최근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MZ세대 소비자들이 이전 세대와는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우선 지갑은 얇지만, 취향은 확실하다

는 특징이 있다. MZ세대의 소비성향을 살펴보기 전에, 이들의 경제관이 형성됐던 시기를 살펴봐야 한다. MZ세대의 한 축인 30대를 예를 들어보자. 이들은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때 성인이 됐고, 취업 후 한창 일하던 시기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인한 엄청난 삶의 변화를 겪어야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이라는 두 가지 사건의 영향으로 MZ로 불리는 청년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비관적인 면이 더 강하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진단했다. 일련의 예측 불가능한 사건을 겪으면서 MZ세대가 미래에 대한 불신과 불확실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이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Z세대(1997년 이후 출생자)의 4분의 1은 자신이 미래에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의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은 부모세대인 X세대(1965~1980년생)나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생)가 과거 청년기에 축적했던 부(富)보다 더 적은 가치의 부

를 축적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현재 한정된 자금과 자원을 충동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부추긴다. 미래를 대비하기보다는 ‘현재에 충실하자’는 생각이 강해지는 것이다. 특히 MZ세대가 기성세대보다 코로나19로 인한 더 큰 혼란을 겪으면서 이러한 경향이 더 커진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밀레니얼(M)세대(1981년~1990년대 후반 출생)는 전년 대비 17% 더 많이 지출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럽의 10대와 20대의 45%가 향후 3개월 사이 사치스러운 소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 응답자의 83%는 사치스러운 소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렇게 충동적인 소비 경향이 큰 MZ세대를 겨냥한 ‘선구매 후지불(BNPL)’ 서비스 앱도 인기가 높다. 시장 조사업체 포레스터에 따르면 BNPL 앱의 대부분 사용자가 20대다.

소비 대상도 기성세대와 큰 차이를 보여준다. 대표적인 예가 명품 소비다. 기성세대와 달리 MZ세대에 ‘사치품’은 필수

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명품 첫 구매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어려운 시기에도 명품의 가치는 유지된다고 믿으며 즉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명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치 중심적 소비 경향도 뚜렷하다. 이러한 가치에는 인종·성별과 같은 정체성, 기후변화 등이 포함된다. 다만 즉각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MZ세대의 욕구와 친환경 등 가치 소비 경향은 상충하거나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고기 대신 채식을 먹는 친환경적 식습관은 소량의 식사를 배달시키며 사용되는 오토바이의 휘발유 사용 등 환경적 측면에서 상충된다.

MZ세대의 소비 습관은 ‘주목경제(관심경제·Attention Economy)’로도 정의된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MZ세대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쇼핑을 선호한다. 여기서 소셜미디어는 MZ세대의 시선을 잡아끌어 소비로 이끄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에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MZ세대가 자사 앱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각종 기능을 늘리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다시 치솟고 있는 레코드판 인기에 불붙인 세대는 다음 아닌 Z세대다. 쇠퇴의 길을 걷던 레코드판 시장이 최근 몇 년 새 급변했다. 미국에선 2021년 35년 만에 다시 레코드판 매출이 연 10억 달러(약 1조 3010억 원)를 돌파했으며 작년 상반기에만 6억 달러에 육박했다. 1991년 이후 20여년간 레코드판 시장 규모는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다.

최근 일본 히트케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레코드판의 부활을 주도한 건 Z세대다. 미국에서 레코드판 가게를 운영하는 짐 헨더슨 씨는 “지금까지는 방문한 적 없었던 새로운 세대의 방문이 늘었

‘희소가치 매력’에 빠진 Z세대, 레코드 부활 이끈다

2021년 매출 연 10억달러 돌파
‘소유’ 감각 찾는 젊은층이 중심
가수 인기에 음반가치도 재조명

다”고 말했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 ‘디지털 네이티브(디지털 원주민)’으로도 불린다.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유행했던 레코드판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닥터케이네 이들은 음악을 ‘소유’하는 개념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Z세대에게 소리가 나오는 실체, 즉 레코드판을 사서 소유하는 것이 희소 가치가 있는 경험인 셈이다.

시장 조사업체 루미네이트에 따르면 작년 미국에서 팔린 레코드판 수는 4350만 장으로 판매액은 물론 판매 장수 모두

CD를 넘어섰다.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다. 일본 레코드협회에 따르면 작년 레코드판 생산량은 213만 장으로 5년 전보다 2배 늘었다.

레코드판이 사라진 이유는 ‘불편’했기 때문이다. 이동하며 들을 수 없는 레코드판은 경쟁력이 없었다. 2003년 아이튠즈를 시작으로 음원 다운로드가 활성화될 무렵에는 자취를 감추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불편이 소유라는 감

각을 주는 희소가치가 된 것이다.

Z세대는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레코드판을 구매하기도 한다. 루미네이트 조사에 따르면 작년 레코드판 구매자 중 절반은 탄테이블을 갖고 있지 않았다. 또 음악을 제작하는 사람으로서도 레코드판은 가치가 있다.

전문가들은 레코드판 열풍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함께 성장한 결과란 점에 주목했다. 음원 시장이 커지면서 음반 가치가 재조명됐다는 것이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강점이 잘 결합된 사례로 다른 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영인 기자 oin@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진심으로 통하는 맛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전 세계 **30개국**에서 만나보세요!



www.kukdduk.com

추억의국민학교떡볶이

데이터 출처: 자사 수출 국가 기준

고객센터 1644-9798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은 교육부와 함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병설유치원 및 돌봄교실 2,265개를
전국에 신설 또는 증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부터는
더 오랜 시간까지
부모님께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늘봄학교가 문을 엽니다

“밤 8시까지
운영되는 늘봄학교”
KB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희망을 만드는
Korea Better
KB금융그룹



늘봄학교란?

늘봄학교는 부모님이 안심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아이들이 양질의 돌봄과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평일 저녁 8시, 토요일 오후 1시 그리고 방학기간까지 돌봄 시간이 확대된 교육부와 KB금융그룹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주인공인 아이들을 위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입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KB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 KB 금융그룹**

“어제 적이 오늘은 아군” 완성차-배터리업체 ‘동맹 다변화’

거미줄처럼 얽힌 파트너십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의 동맹이 강화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아직 ‘절대강자’가 없는 상황인 만큼 완성차 업체들이 핵심 소재인 배터리 수급 안정화에 전력하면서 파트너십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히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8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에서 최윤호 SDI 사장과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GM과 합작공장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합작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30~50GWh(기가와트시) 규모로, 양사는 3조~5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가 북미 현지에서 완성차 업체

와 합작공장을 짓는 것은 지난해 4월 스텔란티스와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한 데 이어 두 번째다.

GM이 LG에너지솔루션 대신 삼성SDI와 손잡은 것은 최근 복잡해지고 있는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 간의 동맹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그동안 GM은 LG에너지솔루션과, 포드는 SK온과 각각 배타적 파트너십을 유지해왔지만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GM은 2019년 LG에너지솔루션과 전기차배터리합작사 얼티엄셀즈를 설립했다. 지난해 말 양산을 시작한 오하이오 1공장을 비롯해 총 3개의 합작공장을 가동하거나 건설 중이다. GM은 네 번째 합작공장을 짓기 위해 LG에너지솔루션과 협상을 벌여왔지만 결국 무산됐다.

GM-LG엔솔 4번째 공장 무산 8일 삼성SDI와 MOU 맺기로

LG엔솔은 지난달 포드 손잡아 SK온 대신 튀르키예공장 합작 배터리 공급 안정 ‘협력 다각화’

LG에너지솔루션은 대신 포드와 손을 잡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포드, 튀르키예 최대 기업인 코치와 전기차배터리 생산 합작법인 설립 MOU를 맺었다.

SK온과 합작사 블루오벌SK를 출범시킨 포드는 애초 SK온과 튀르키예에 합작공장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지지부진하면서 지난달 상호 동의하에 MOU를 공식 종료

하고 LG에너지솔루션과 손을 잡았다.

SK온과 포드의 튀르키예 프로젝트는 무산됐지만 미국에 함께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SK온에 따르면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국 켄터키주 글렌데일에 있는 ‘블루오벌SK 켄터키’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는 삼성SDI와의 협력에 앞서 지난해 3월 LG에너지솔루션과 캐나온타리오주에 배터리 합작공장을 세울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들 간의 다각적인 협력 관계 구축은 배터리 공급 안정화 및 다변화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파우치형·원통형 배터리, 삼성SDI는 각형·원통형 배터리

를 생산한다.

스텔란티스의 경우 산하에 많은 자동차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 필요한 전기차 배터리 타입이 다양하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을 통해 각각 파우치형과 각형 배터리를 공급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GM은 얼티엄셀즈를 통해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다. 파우치형 외에 원통형과 각형 배리를 확보하기 위해 삼성SDI와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기존 1대 1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보다 협력 관계를 다변화하는 게 (시장 지배력 확대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수급 안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배터리 품팩터를 보유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이 3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 총리공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총리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유럽 3국서 “부산엑스포 지지” 호소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파견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유럽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5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스페인, 덴마크, 포르투갈에서 고위 인사들을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벌였다.

최 회장은 3일(이하 현지시간) 포르투

갈 리스본 총리공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와 면담하고 협력 증진과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와 민간이 협조를 통해 많은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을 만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외항사 물량공세에 설곳 좁아진 국적기

국적기 좌석 2019년 절반인테 비엠펙·베트남·델타는 100% 동남아 입국규제 선제완화 효과

외국 항공사들이 공급 좌석을 공격적으로 늘리며 국적항공사들의 시장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방역 규제로 인해 국적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 증편이 주춤한 사이 외항사들은 물량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적사 9곳의 국제선 항공좌석 공급 규모는 164만 9781석이다. 2019년 같은 기간 306만 3807석에 비해 53.8% 수준으로 회복했다. 2021년 같은 기간인 28만 5368

석에 비하면 6배가량 증가한 규모다.

외항사의 같은 달 국제선 공급 규모는 79만 3863석이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12월(161만 1639석) 대비 49.2% 수준이다. 전체 좌석 공급규모 회복 수준은 비슷하지만 특정 항공사들의 공세는 매섭다.

비엠펙항공, 베트남항공, 델타항공 등 외항사의 좌석 공급 규모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항공사들의 지난해 12월 기준 좌석 공급규모는 각각 12만 1080석, 6만 8329석, 3만 8474석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126.7%, 100.3%, 103.5%의 회복률을 보였다.

비엠펙항공의 경우 2022년 4분기 국내 승객 수가 전년 대비 7배 증가했

다. 팬데믹 이전 성장률인 24%보다 높은 성장세다. 지난해 항공기 1만 6000편을 통해 총 205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운송했다. 이에 지난해 4분기 비엠펙항공은 전년 대비 175% 증가한 3억 1550만 달러(약 4100억 원)의 순 매출과 3870만 달러(약 504억 원)의 이익을 기록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외항사의 회복 속도가 빨랐던 이유는 관광이 핵심 산업인 동남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입국규제를 선제적으로 완화했기 때문”이라며 “각국 정부가 외항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만큼 국내 항공사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LG 세탁기의 심장 ‘인버터 DD모터’, 누적 생산 1억대 돌파

LG전자 세탁기의 핵심부품인 ‘인버터 DD(Direct Drive)모터’가 누적 생산량 1억대를 돌파했다.

LG전자는 인버터 DD모터 누적 생산량이 올해 2월 말 기준 누적 1억 1200만대를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2018년 초 누적 생산량 7000만대를 기록한 이후 5년 만에 4000만대 이상을 추가 생산했다.

인버터 DD모터는 모터와 세탁통을 직접 연결해 소음과 에너지 소모량을 줄였다. 세탁통과 모터를 연결하는 별도 부품이 없어 제품이 구조적으로 단순해지고 내구성까지 향상됐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건조기에도 인버터 DD모터를 확대 적용했다.

LG전자는 현재까지 4세대에 걸쳐 인버터 DD모터의 기술과 성능을 발전시켰



창원 LG스마트파크에서 인버터 DD모터가 생산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다. 인버터 DD모터 관련 특허를 국내와 해외에서 240여 건 보유하고 있다.

3세대 DD모터는 모터에 감는 코일의 재료를 구리에서 알루미늄으로 변경해 같은 성능을 구현하면서도 원가 경쟁력을

향보했다. 4세대 DD모터는 전기강판 재질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더욱 높였다. 2017년부터는 DD모터의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제조하는 완결형 생산체계를 갖춰 품질과 생산 효율을 모두 향상시켰다.

LG전자의 모터 기술력은 인버터 DD모터뿐 아니라 에어컨 컴프레서에 탑재하는 인버터 모터, 냉장고 컴프레서에 탑재하는 리니어 모터 등에도 적용됐다. LG전자는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한 모터 고효율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있다.

김양순 LG전자 H&A사업본부 부품솔루션사업부장 전무는 “ESG 관점에서 제품의 탄소배출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부품 고효율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솜 기자 citizen@

에너지 취약계층에 온기 전하는 포스코인터

12년째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2년부터 총 444가구에 냉·난방 효율 개선사업을 지원했다. LNG터미널이 위치한 전남 광양에서는 39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임직원들은 에너지 보급 취약 가구를 방문해 전기 안전 점검과 더불어 노후화된 전선 등을 교체해 주는 등 전기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에너지를 활용해 지역사회를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활동들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우세 굳히기’ 나선 하이브

‘SM엔터 인수전’
2라운드 스타트

‘반격’ 준비하는 카카오

하이브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공방의 1라운드 격인 가처분 신청에서 우위를 점했다. 이달 말 예정된 주주총회를 앞두고 여론전을 중심으로 한 2라운드가 시작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공개매수로 확보한 SM엔터테인먼트 지분율을 오는 6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온전히 지배하기 위해 주주총회 준비에 주력할 전망이다.

하이브는 SM엔터테인먼트의 현 경영진을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다른 주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카카오에 대한 SM엔터테인먼트의 신주 등 발행을 금지하도록 한 법원 결정이 나오자 즉각 “현 경영진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가 명확히 저지됐다”고 입장을 냈다.

법원이 이 전 총괄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는 지분확보의 부담을 덜고 소액주주의 의견권 확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법원, 이수만 가처분 신청 인용
카카오 9.05% 지분 취득 제동
승기 잡은 하이브 ‘주총 여론전’

주주제안을 통해 제시한 경영진 교체를 성공시켜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방시혁 의장이 직접 CNN과 인터뷰를 통해 주주총회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주주제안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서도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이브가 제시한 새 이사진은 이재상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 이진화 하이브 경영기획실장 등이다. 이들 3명과 사외이사 3명, 기타 비상무이사 1명, 비상임감사 1명 등 총 7명을 후보로 세웠다. 정 CLO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SM엔터테인먼트

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라고 강조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추천한 사내이사 후보 3명에 대해서는 “면면을 봤을 때 SM 3.0이 추구하는 전략 방향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이 미흡하다”며 “SM을 제대로 바꿔나갈 능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럴 자격이 되는지의 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카카오는 법원 결정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짧게 밝힌 뒤 장고에 들어갔다. SM엔터테인먼트 지분 9.05%를 확보하는 방안이 무산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가 투자유치 등으로 확보한 실탄을 바탕으로 지분싸움을 이어갈 가능성도 남아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의 미래를 고려하면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가 우려되는 공룡 엔터 기업의 탄생을 손 놓

카카오,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맛볼 공개매수’ 나설 가능성도
추가지분 확보 1.3兆 비용 부담

고 보기는 어렵다.

주식 공개매수 등을 위한 물밑작업이 대부분 완료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호 지분 확보 싸움도 치열하다. 16일 2.9%, 28일 4.56% 지분을 확보한 ‘기타 법인’이 카카오의 우호 세력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이브는 효성그룹 계열사인 갤럭시아에스엠이 보유한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약 1%를 매수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635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계획을 밝히고 지분 확보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기준 SM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자사주는 24만1379주로 전체 주식의 1.01% 수준이다. SM엔

터테인먼트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지분 9.05%를 9만 원대에 확보할 기회를 잃으면서 비용적 부담이 더 커졌다. 카카오가 1주당 14만 원으로 40% 지분을 공개매수 할 것으로 가정하면, 단순계산으로 약 1조3300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 이전보다 1000억 원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법원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향후 의결권 확보를 위한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정상적인 의안을 가결한 하이브의 이사회가 대주주에게만 충실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하이브의 적대적 M&A가 성공할 경우 또다시 대주주만을 위한 SM으로 퇴행할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비판 강도를 높인 바 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이차전지 교체형 배터리 플랫폼, 자체양산 준비”

인터뷰 유인수 셀루메드 대표

“이차전지 교체형 배터리 플랫폼은 국내 최초로 추진 중인 만큼 신속한 투자를 통해 국내외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

유인수(사진) 셀루메드 대표는 5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달 초 국내 시장을 선점한 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시장에 공략해 글로벌 이차전지 플랫폼기업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셀루메드는 인체유래 생체재료 바이오소재 사업에서부터 이차전지 교체형 배터리팩 사업까지 성장성 높은 사업을 하고 있다. 1997년 설립돼 조직은행을 시작으로 인공관절, 의료기기, RNA(리보핵산) 효소 등 본원사업인 바이오 의료기기 사업을 통해 성장했다.

셀루메드가 추진 중인 이차전지 관련 신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이차전지 교체형 배터리팩의 자체 양산 및 유통 △국가 표준형 배터리팩이 적용된 전기이륜차의 생산 및 판매 △다양한 표준형 배터리팩 호환이 가능한 ‘배터리 교환스테이션(BSS)’ 사업이다. 유 대표는 “이차전지와 전기차 분야



연내 이차전지 사업 기틀 마련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기대
“글로벌 플랫폼기업 도약 목표”

글로벌 최고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배터리 솔루션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교체형 배터리팩을 자체 양산 공급할 계획”이라며 “NCM(니켈 코발트망간),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등 고객의 수요 맞춤형 솔루션을 공급할 예정이며, 다양한 전기이륜차에 호환 가능한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전기이륜차 교체형 배터리팩을 공급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성능이 검증된 전기이륜차 모델을 기본으로 배터리 교체형 플랫폼으로 컨버전시켜서 양산 판매할 예정”이라며 “자체 개발한 국산 모델도 개발 및 양산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셀루메드는 연내 이차전지 신사업과 관련한 기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파트너와 본계약 체결, 신규 투자를 통한 양산공장 구축, 관련 기업과 지자체 등과 협력관계 구축, 기타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인허가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실적 성과를 낼 것이라 계획이다.

투자자들도 신사업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한다. 그는 “최근 대부분의 전환사채(CB) 투자자들이 이차전지 신사업과 관련한 긍정적인 전망과 기대감으로 전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장기투자자로 전환됐다”라며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과정에서 만난 투자자들 또한 이차전지 교체형 배터리 플랫폼에 대한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작년 글로벌 가상자산 투자액 43% 폭

VC 투자 줄고 신규 ICO 감소
‘중앙화 거래소’ 투자 73% ↓
‘탈중앙화 거래소’는 40% 늘어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금액이 42.8%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크립토 윈터의 여파에 VC 투자가 줄고, 신규 ICO(initial coin offering·코인 발행)도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모인 투자 금액이 약 182억5982만 달러로 2021년 약 319억2647만 달러 대비 42.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블록체인 인프라, NFT, 게임파이(GameFi) 등 상당수 분야에서 투자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특히 중앙화 거래소와 관련한 프로젝트 투자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중앙화 거래소와 이와 관련한 프로젝트(CeFi) 투자 금액은 43억9000만 달러로 2021년 160억2900만 달러 대비 73% 줄었다.

게임파이와 소셜 분야에서는 지난해 2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채굴 분야에서는 투자 금액이 16억9314만 달러에서 9억6500만 달

러로 43% 줄었고, 블록체인 인프라 분야에서는 투자 금액이 36억9497만 달러에서 27억7900만 달러로 24% 감소했다.

반면 탈중앙화 거래소와 관련된 투자는 약 61억200만 달러로 지난해 43억5098만 달러 대비 40.2% 증가했다. 지난해 자금을 조달한 주요 DeFi 프로젝트에는 1억6500만 달러 규모의 유니스왑(Uniswap)과 9400만 달러 투자를 받은 유동성스테이킹 프로토콜 리도(Lido)가 포함됐다.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 분야와 AI·데이터 분야에서도 투자가 늘었다. 2021년 9억3305만 달러였던 기술 및 서비스 분야 투자금액은 27억1300만 달러로 2.9배 뛰었다. AI·데이터 분야는 2021년 2억5500만 달러에서 4억2122만 달러로 65% 증가했다.

이는 업계에서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줄고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낙관적 전망은 이르다. 지난해 모인 DeFi 투자금액의 37%는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LFG)가 테라·루나 사태 이전인 2022년 2월에 10억 달러에 달하는 토큰을 판매한 금액이다.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투자 역시 많이 늘어나기는 힘들 거란 전망이다. 안유리 기자 inglass@

현대리바트, 업계 첫 ‘중고가구 거래 플랫폼’ 오픈

해체·배송·설치 ‘원스톱 서비스’

현대리바트가는 국내 가구업계 최초로 ‘중고 가구 거래 전문 플랫폼’인 ‘오구가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오구가구는 현대리바트 공식 온라인몰인 리바트몰 카테고리에 속인속 형태대로 들어선다. 오구가구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판매 수수료 없이 가구 이미지 또는 동영상과 판매 희망 가격, 배송 출발 장소 등을 페이지에 기입하면 된다. 중고가구를 구매하려는 경우 배송받을 장소와 날짜를 기입하고 안전결제를



통해 제품 비용과 배송 설치비를 지불하면 배송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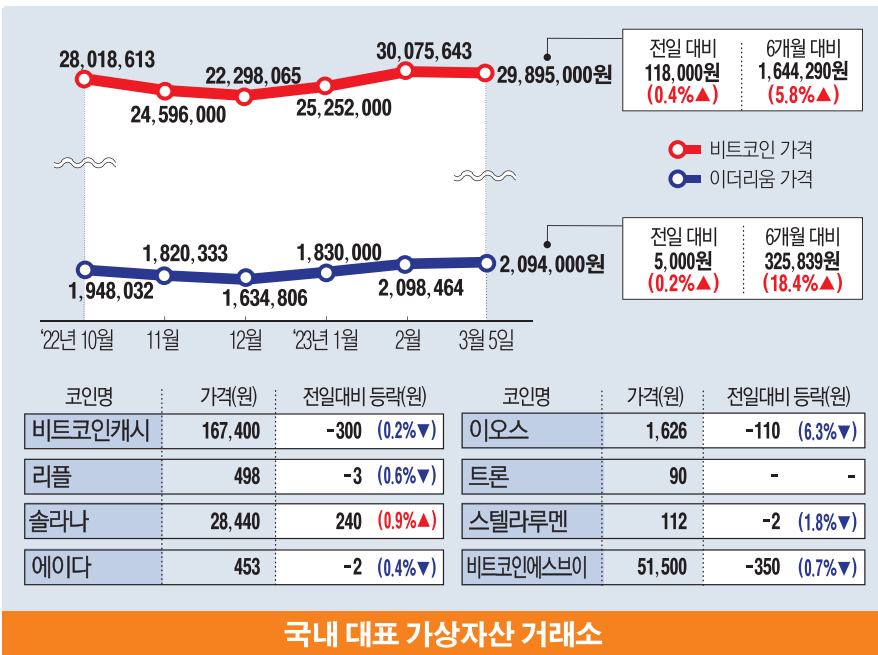
오구가구는 중고 가구 판매와 구매만 이뤄지는 기존 플랫폼과 달리, 현대리바트의 전문 설치기사가 직접 가구 해체부터 배송 및 설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게 특징이다. 중고 가구를 거래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움이 컸던 배송 및 설치 문제를 보완했다. 이를 위해 현대리바트는 기존 300여 설치팀 외에 불박이장이나 침대 등 별도의 이전·설치가 필요한 품목을 전담하는 50여 팀을 추가로 구성했다.

현대리바트는 오구가구 서비스로 통해 연간 264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매월 약 20톤 가량의 가구를 소각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순환 체계가 갖춰지면 연간 264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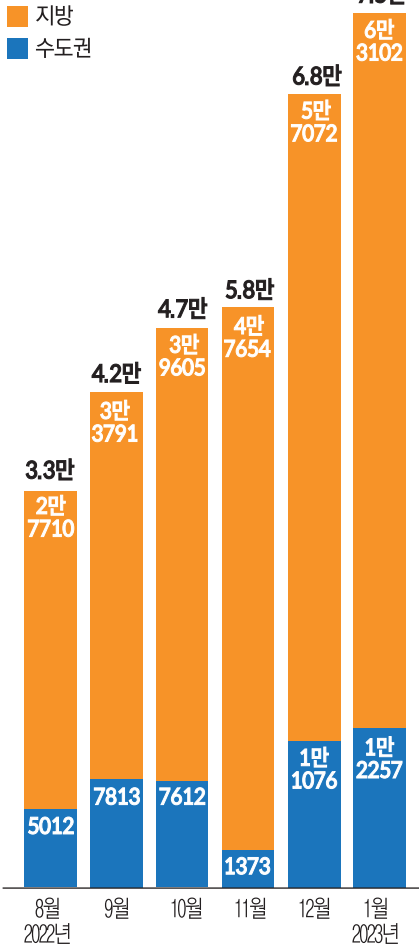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3년 3월 5일 17:00, KST)



전국 미분양 초비상…“상반기 10만채 넘을 것”

전국 미분양 주택
(단위: 가구)



수도권 1만채·지방 6만채 적체 대전 작년 8월 대비 350% 폭증 일각선 올해 12만채 미분양 거론 최악 상황 땀 정부 개입 가능성

미분양 주택 증가 문제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최근 6개월 동안 미분양 주택이 최대 5배 늘어난 곳도 확인됐다. 청약시장 침체가 계속되지만, 건설사의 고분양가 기조는 꺾일 기미조차 없다. 집값 내림세에 고분양가 부담까지 더해지자 실수요자는 분양시장서 분양시장 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상반기 중으로 미분양 ‘10만 가구’ 선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면서 추가 악화가 이어지면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5일 본지가 국토교통부 미분양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반년 동안 수도권 미분양 주택 증가율이 지방 증가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선 서울보다 인천과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다.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359가구

로 지난해 8월 3만2722가구 대비 130% (4만2637가구) 늘었다. 수도권에선 이 기간 5012가구에서 1만2257가구로 늘어 145% (7245가구) 증가했다. 지방은 2만7710가구에서 6만3102가구로 128% (3만5392가구) 증가해 수도권과 전국 평균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수도권에선 특히 인천의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가팔랐다. 인천은 1월 미분양 주택이 총 3209가구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1222가구 대비 163% (1987가구) 급증했다. 경기지역도 3180가구에서 8052가구로 153% (4872가구)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은 610가구에서 996가구로 63% (386가구)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인천과 경기도는 최근 대단지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인천은 지난해 12월 대비 미분양 주택이 28.7% 급증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분양한 대단지가 평균 경쟁률 0.6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청약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1월 경기 지역 미분양 물량은 전월 대비 6.1% 늘었다. 이날 경기부동산포털이 집계한 ‘경기도 미분양주택 현황’에 따르면 미분양 물

량이 가장 많은 곳은 평택시로 1447가구에 달한다. 화성시 역시 1352가구로 지난 1월 한 달 만에 616가구 늘었다. 평택에선 화양지구 일대 단지 위주로, 화성시에선 동탄2신도시 일대 신축 단지 위주로 미분양이 급증했다.

지방에선 대전의 미분양 물량 적체 속도가 가팔랐다. 대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8월 668가구 수준이었지만, 지난 1월에는 3025가구로 2357가구(353%) 증가했다. 대구는 기존 미분양 물량이 많이 쌓여 증가율은 낮았지만, 여전히 미분양 적체 현상은 심각했다. 대구는 지난해 8월 8301가구에서 1월 1만3565가구로 63% 늘었다.

이렇듯 분양시장 내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는 가운데 건설사의 고분양가 기조가 이어지고, 정부 역시 당장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미분양 주택이 더 쌓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달 발표한 민간아파트 평당 분양가 동향에 따르면 1월 기준 전국 3.3㎡당 분양가는 평균 1571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 말 1417만 원보다 10.9% 오른 값

이다. 수도권은 이 기간 3.3㎡당 2065만 원에서 2149만 원으로 4.1% 상승했다. 실수요자가 청약을 결심하더라도 고금리에 분양가 상승이라는 ‘이중고’ 영향으로 분양받기 힘든 환경이다. 여기에 정부는 미분양 물량 급증에도 아직 ‘개입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현재 미분양은 건설사의 가격 할인 등 자구 노력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일시적인 마찰성 미분양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미분양 물량이 당분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늘어 상반기 10만, 연내 12만 가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한 토론회에서 “초기분양률이 현재와 같이 58.7%로 낮게 유지되면, 연내 미분양 주택이 12만 가구에 육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가 당장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도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상반기 중으로 10만 가구를 넘기면 취득세 할인이나 직접 매입 등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중전건설사가 폐배터리 재활용?… ‘미분양 지옥’서 사업다각화 돌파구

아이에스동서, 전기차 인프라 투자 계통건설, 데이터센터 진출 타진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중전 건설사들이 사업 다각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미분양 심화·원자재값 폭등’ 등 대내외적 변수가 잇따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대형 건설사와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다 본업인 주택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

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359가구로 전월(6만8148가구) 대비 17.4% 증가하면서 2012년 11월(7만6319가구)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중전사들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늘리는데 한창이다. 데이터센터 구축,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신사업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계통건설산업은 28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사업 목적 추가 안건 등을 의결한다. 의결 내용은 △데이터센터의 구축·판매·운영·

임대 △벤처사업의 발굴·운영·투자·육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컴퓨터 시스템, 통신 장비, 대규모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설치된 시설로 첨단 정보통신 활용을 위한 데이터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직접 소유해 운영사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아이에스동서는 권혁은 회장의 지휘 아래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아이에스동서는 지난해 설립 이후 최초로 매출 2조 원을 넘겼다. 영업

이익은 전년 대비 11.0% 늘어난 3450억 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하면서 건설사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달 16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아이에스동서는 사모펀드(PE)로부터 지분 전량을 인수하며 아이에스TMC의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기차 시장 급성장에 따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 규모는 2019년 1조6500억 원에서 2030년 20

조 원, 2050년 6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서는 것은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1일 임시국회 업무보고에서 주택 시장은 높은 대출금리와 매매·전세 가격의 연세 하락 등으로 당분간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중전사 관계자는 “단순 주택사업만으로는 회사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보고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금주의 분양캘린더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339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총 5개 단지에서 3390가구(일반분양 241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경기 평택시 현덕면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총 5개 단지에서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경기 화성시 신동 ‘화성동탄 2A54’ (행복주택)는 8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인천 서구 삼곡동 ‘인천가정 2A1’은 9일 당첨자를 가린다. 계약 진행단지는 총 6곳이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더샵 아르테’는 8일까지 계약을 받는다. 충남 홍성군 홍북읍 ‘도청이전 RH11’ (국민임대)은 9일까지 정당 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단지는 4곳이다.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자이 센트로’, 부산 남구 우암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등 4곳이 견본주택을 연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3/6(월)	접수	서울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3단지(사전예약) 2순위
		경기	수원시	지동	수원성정흥S클래스 (~3/8)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더샵아르테 (~3/8)
3/7(화)	접수	서울	강서구	등촌동	등촌지외인 1순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영등포자이디그니티 1순위
		경기	평택시	현덕면	힐스테이트평택화양 1순위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양센트럴파크남양휴튼 1순위
	계약	충남	아산시	배방읍	아산탕정2A6(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3/9)
		충남	아산시	배방읍	아산탕정2A9(행복주택) (~3/9)
		충남	홍성군	홍북읍	도청이전RH11(국민임대) (~3/9)
3/8(수)	접수	충남	홍성군	홍북읍	도청이전RH11(영구임대) (~3/9)
		서울	강서구	등촌동	등촌지외인 2순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영등포자이디그니티 2순위
		경기	평택시	현덕면	힐스테이트평택화양 2순위
3/9(목)	발표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양센트럴파크남양휴튼 2순위
		경기	화성시	신동	화성동탄2A54(행복주택)
3/10(금)	오픈	인천	서구	삼곡동	인천가정2A1(행복주택)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자이센트로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금강랜더리움3차센트럴파크
		부산	남구	우암동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
	접수	전북	정읍시	농소동	정읍푸르지오더퍼스트
		서울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 1순위
	발표	인천	서구	가정동	인천가정2A3(행복주택)
		강원	원주시	무실동	남원주역세권A6(행복주택)
3/10(금)	발표	경남	양산시	동면	양산사승A2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주1)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오픈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2)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부동산R114

LH, 올 6000가구 분양… 6만8000가구 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국 분양·임대주택 7만4576가구를 공급한다. 5일 LH에 따르면 분양주택은 뉴·홈 일반형 및 신혼희망타운 14개 단지에서 6353가구가, 임대주택은 건설임대 1만1683가구, 매입임대 2만6380가구, 전세임대 3만160가구가 나온다. 분양주택은 상반기에 위례 등 1892가구, 하반기에는 인천 계양 등 4461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실시된다. 전체 중 3165가구는 뉴·홈 일반형으로 공급된다. 해당 주택은 교통 및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397가구, 지방권에서 768가구를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인천계양 747가구 △파주운정3 642가구 △화성태안3 688가구 △성남신촌 320가구 △부산문현2 768가구다.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전국에서 3188가구가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서울대방 122가구 △위례 440가구 △고양장항 371가구 △서울공릉 154가구 △인천계양 359가구 △인천가정2 534가구 △수원당수 484가구 △의왕청계2 320가구 △남

원주역세권 404가구다. 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대비 3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건설임대주택은 총 1만1000가구가 공급되며, 세부적으로는 △영구임대 1000가구 △국민임대 2000가구 △행복주택 7000가구 △공공임대 1000가구다. 매입임대주택은 2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올해에는 쪽방·고시원·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대상 공급물량을 지난해 7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임대주택은 총 3만 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1월부터 청년(1순위)·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수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일반계층은 6월 이후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국민이 적기에 청약접수를 할 수 있도록 주택 건설공사 등 선행 일정을 꼼꼼히 관리하고, 마감제 개선 등으로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은행이 응원합니다



Shinhan

고객을 이롭게 하는 금융-시니어 창구 송금 수수료 면제 편

신한은행,
시니어 고객은
받지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창구에서도
송금 수수료
0원!

변함 없는 사랑으로 찾아주시는 시니어 고객님을 위해
신한은행은 창구 송금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더 이로운 금융으로
신한은행이 또 한번 나아갑니다

신한은행

만 60세 이상 개인의 창구 타행 원화 송금 수수료에 한함.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고객센터(1599-8000)에 문의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3-10546-2호(2023.02.13~2024.02.13)

치솟는 은행채... 정부 압박에도 대출금리 인상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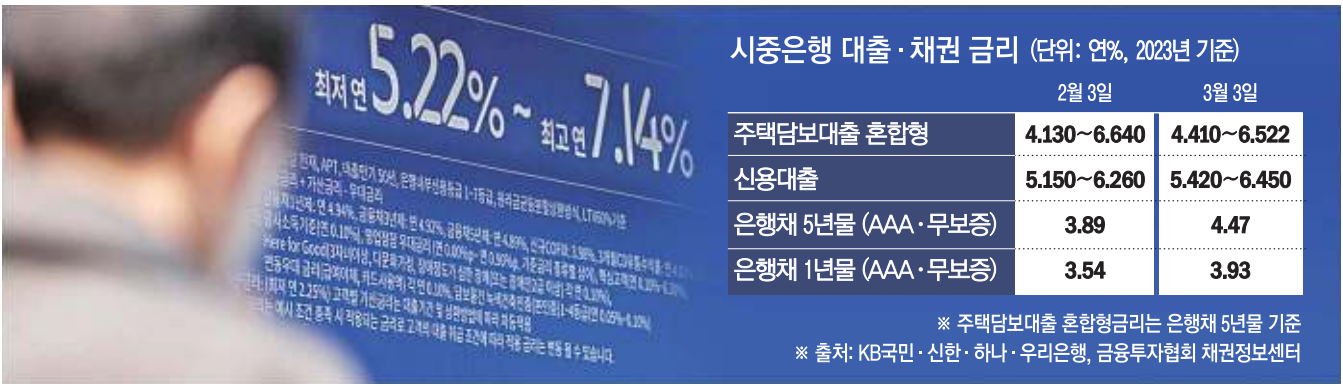
고정형 주담대 연 7% 근접 전망

3일 기준 은행채 5년물 금리 연 4.47%로 한달 새 0.58%p ↑
정부 압박에 가산금리 내렸지만
美 기준금리 올리면 다시 올려야

올해 들어 안정세를 보이던 은행채 금리가 다시 급등세를 보이면서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못매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금리담합 조사 등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은행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5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3일 기준 은행채 5년물(AAA) 금리는 연 4.47%로 한달 전(2월3일) 보다 0.58%포인트(p) 늘었다.

올해 1월 2일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연 4.76%에서 지난달 3일 연 3.89%로 하락했다. 이후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이달 2일에는 연 4.56%까지 상승하며 지난달 중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은행채 금리가 한달 새 0.7%p나 상승한 건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당



시 이후 처음이다.

은행채 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데 따른 영향이다. 미 연준은 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발표된 1~2월 고용·물가지표는 모두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고, 연준 인사들은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에 나서고 있다.

연준은 지난달 1일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4.75%로 0.25%p만 올리면서 금리 속도 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속도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빅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p 인상)

을 밝힐 가능성도 높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3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약 1년 반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멈춘 후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이어지고 환율이 급등했다. 현재 한·미 금리차는 1.25%p인데 연준이 3월과 5월 FOMC에서 베이비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25%p 인상)만 한 두 차례 더 밟아도 한·미 금리차는 1.50~1.75%p까지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투자금이 빠지고 환율 상승압력이 강해진다. 결국, 수입물가가 올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점쳐지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금

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채권금리 인상과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대출금리도 동반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 6% 중반인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7%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고정형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은행채를 준거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역시 7% 수준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 노력은 상쇄되고 있다. 앞서 은행

들은 이자 부담을 줄이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산금리를 낮췄다. 하나은행은 2일부터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 취급 금리를 최대 1%p 인하했다. KB국민은행도 지난달 28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p 내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금리 인하에 한계가 있다”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대출금리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리스크센터장은 “경기둔화, 부동산시장 침체, 금융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상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국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도 상당부분 미국과 동조화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동반된 유지되면서 대출금리도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손희정 기자 sonhj1220@

무더기 폐점 막는다... 금융당국, 은행 점포 축소·폐쇄 법제화에 무게

4대 은행, 5년새 500여곳 줄여
올해도 80곳 영업점 폐점 계획
은행 “점포 늘면 수수료 오를 것”

“근처 지점이 없어지면서 이용하던 점포에 사람이 더 몰렸어요. 이전에도 길었던 대기시간이 배로 늘었습니다. 은행을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한나절 걸리니 점심시간에도 갈 엄두가 안 나요.”(20대 금융소비자)
금융당국이 허가를 받아야만 은행 점포를 축소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속도를 낸다. 최근 수년간 급격

하게 진행된 은행 점포 축소에 당국이 자체를 권고했지만 무더기 점포정리가 계속되자 이에 법제화에 무게를 두고 관련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다만, 모바일뱅킹과 핀테크 확산 등 디지털·비대면 거래가 시대적인 흐름이 된 데다 수익성 향상을 위해 비효율점포를 줄일 수밖에 없는 은행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은행 점포 축소·폐쇄 관련 절차 법제화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점포 축소·폐쇄 절차와 관련해 입법이

필요한지부터 시작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디지털 소외 계층의 접근성 제고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실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은행 점포를 찾는 고객들이 급감하면서 최근 수년간 지점은 무더기로 문을 닫았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국내 점포 수는 총 2539곳으로, 5년 전보다 500여 곳 넘게 줄었다. 4대 시중은행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46곳에 달한다. 4대 시중은행은 올해도 80곳의 영

업점을 폐점할 계획이다.

문제는 은행 점포가 줄면서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시행 중이다. 은행들은 점포 폐쇄 결정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해 당국에 제출하고, 폐쇄 최소 3개월 전에 고객에게 공지해야 한다. 특정 지역 점포 폐쇄를 가정해 사전영향평가를 했을 때 소비자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점포를 유지하거나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권 자율로 이뤄지는 데다

권고 수준에 그치고 법적으로 규제할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 중심의 점포폐쇄 공동절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업계는 점포 폐쇄를 억지로 막으면 소비자들이 또 다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면 채널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점포를 운영하려면 인력 등 비용이 늘어나고 전체 비용이 늘면 이자를 더 받거나 수수료를 더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다중채무자 10명 중 3명은 30대 이하... 평균 빚 1.1억

“취약차주 위한 금융 지원 필요”

다중채무자(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차주) 10명 중 3명은 30대 이하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다중채무자는 작년 3분기 기준 약 139만 명으로,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1억

1158만 원에 달했다.

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다중채무자 중 30대 이하 청년층은 139만 명이었다. 전체 다중채무자 447만 3000명의 31% 수준이다.

청년층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155조 1000억 원이다. 이를 환산하면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약 1억 1158만 원이다.

2018년 3분기와 비교하면 청년층 다중채무자 수는 6만 3000명(4.7%) 늘었으며, 대출 잔액은 34조 4000억 원(28.5%) 급증했다. 1인당 대출 잔액은 9096만 원에서 4

년 새 2000만 원 이상 증가했다.

진선미 의원은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해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보험금 덜 준 DB손해보험에 과징금 4.9억

금감원 기관주의 처분

DB손해보험이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기관주의와 과징금 4억 9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점 등이 드러난 데 따른 제재 조치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DB

손보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와 거래제한 위반, 개인 신용 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 통제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에 과징금 4억 9700만 원, 과태료 3000만 원을 조치했다. DB손보의 관련 직원 7명은 견책,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

DB손보는 2017년 소속 그룹의 상표 변경으로 옥의 간판을 교체하면서 대주주가 아닌 자사 비용으로 처리한 점을 지

적받았다.

2019년 보험계약관리 시스템의 고객 관리 등 조회 권한을 자회사 직원에게 부여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에게 접근 권한을 줬던 점도 드러났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7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8억 2700

만 원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점이 적발됐다.

이중 보험계약 1956건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 관련 보험금만 지급하고 입원일당, 상해수술비, 골절 수술과 진단 보험금 3억 3500만 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했다.

23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 16명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1470만 원의 특별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발견됐다.

유하영 기자 haha@



방송인 타일러 라쉬가 3월 카카오톡 판교오피스에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카카오톡

카뱅, ‘기후위기’ 타일러 강연

카카오뱅크가 ‘그린 오피스(Green Office) 캠페인’의 일환으로 방송인 타일러 라쉬를 초청해 기후위기 대응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3일 카카오톡 판교 오피스에서 열린 이번 특강에는 ‘두 번째 지구는 없다’의 저자인 방송인 타일러 라쉬가 참여해 카카오톡 임직원 총 25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도심 숲 조성’ 등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하영 기자 haha@

주총 앞둔 오너 3·4세, 지분 늘리고 승진·이사진 합류

본격 경영승계 사전작업

LS일렉 구동휘, 사내이사 추진
금호석화 박준경, 부사장→사장

지분 늘리는 제약·바이오 3·4세
효성 조석래는 캐스팅보트 강화

최근 대기업 및 중견그룹 3·4세들이 입지를 넓히고 있어 재계와 주식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들은 그룹의 지배 및 사업 구조개편을 통해 신사업을 진두지휘하는 한편, 지분을 늘리는 식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그룹 내 경영승계를 위한 본격적인 사전작업에 나섰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은 28일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구동휘 LS일렉트릭 비전경영총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예정이

다. 해당안건이 통과되면 구 부사장은 대표이사로 선임돼 구자균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김동현 ESG 총괄과 함께 3인 각자 대표로 회사를 이끌 전망이다. LS그룹 오너 일가가 LS일렉트릭 각자 대표에 오르는 것은 처음이다. 구 부사장은 오너가 3세로 구평희 E1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구자열 LS그룹이 사회의장의 아들이다. LS산전 중국산업 자동화사업부장 상무, E1 신성장사업부

보폭 넓히는 오너가 3·4세		※ 출처: 이투데이 취합
LS일렉트릭	구동휘 부사장, 3월 주총서 사내이사 선임	
한화솔루션	김동선 본부장이 이끄는 갤러리아 부문 인적분할	
효성	조석래 명예회장, 캐스팅보트 역할 강화 목적 지분 매입 확대	
금호석유화학	박준경 부사장, 사장 승진	
휴젤	허서홍 GS부사장, 기타상무이사 선임	
부광약품	이우현 OCI 부회장, 사내이사 선임	
종근당	이주원 종근당산업 이사 등 홀딩스 지분 확대	

으로 승계 구도가 뚜렷해졌다.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 조 명예회장은 1월 3일부터 11일까지 효성 주식 1만8510주를 매수했다. 증권업계에선 조 명예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조 명예회장의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효성 부회장의 지분율은 각각 21.94%, 21.42%다. 미세한 지분율 차이에 조 명예회장(지분율 9.85%)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3세 경영을 본격화했다. 지난해 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의 회장의 장남인 박준경 부사장이 사장으로, 딸인 박주형 구매담당 전무는 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박 사장은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사장 자리까지 오르면서 지배력을 굳혔다는 평가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3·4세 약진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GS가 2021년 인수한 휴젤은 작년 4월 임시주총을 열고 GS 그룹 오너 4세인 허서홍 GS부사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했다. OCI그룹이인

수한 부광약품은 작년 3월 오너 2세 이상우현 OCI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종근당 오너 3세인 이주원 종근당산업 이사와 이주경·주아 씨는 올해 지주사인 종근당홀딩스 주식을 2만여 주 매집했다. 이 이사의 지분율은 2.62%에서 2.85%까지 끌어올렸고, 이주경·주아 씨의 지분율은 2.45%, 2.42%로 확대됐다. 종근당 외에도 입양약품, 대한약품, 삼일제약, 국제약품 등 제약사 오너 2·3세들도 하락장을 틈타 꾸준히 지분을 늘렸다. 동원그룹 지주사인 동원산업은 보령바이오파마와 지난해 23일 경영권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동원그룹 오너 2세인 김남정 부회장이 전면에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리온담서원 상무는 올해 정기인사에서 수석부장에서 상무로 승진했다. 이밖에 CJ그룹 이선호 경영리더, 농심 신상열 상무 등이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핵심 보직을 맡으면서 3세 경영 포문을 열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부동산PF 부실 확대에… 들쭉이는 NPL펀드

브릿지론 단계서 좌초된 사업
운용사 NPL펀드로 심폐소생
부동산 침체에 NPL시장 커져

금융투자 업계가 부동산발 부실채권(NPL)을 두고 들쭉이고 있다. 기관이나 큰 손들이 NPL 투자에 눈을 돌리면서 자산운용 업계가 NPL 펀드 설정에 적극 나선 것이다. NPL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차주에게 주택이나 주유소, 공장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부실화 대출 채권(고정아하여신)을 의미한다. 5일 자산운용업계 고위관계자는 “현재 전반적으로 운용사들이 NPL 펀드를 위해 투자자들을 콘택트(접촉)하고 있다”며 “시행사들이 사업을 추진했던 브릿지론(Bridge Loan, 단기차입 등에 의해 필요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대출)에서(NPL 펀드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자산운용사 역시 기존엔 담보채권 위주로 NPL 펀드를 조성해왔는데, 올해는 방향을 틀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진행되지 못한 건들도 펀드에 담을 예정이다. 국내대표 부동산 자산운용사 코람코자산신탁도 NPL 펀드 조성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는 “이번 연도 가장 큰 상품군으로 NPL이 떠올랐다”며 “사업성이 있는데 대출이 안 돼 사업이 막힌 사업장 위주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스자산운용 역시 상반기 안에 NPL 4호 펀드를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투자 업계가 NPL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부동산 관련 NPL에 대한 큰 손들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를 제외한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조1465억 원이다.

주요 투자대상은 브릿지론 단계에서 금융을 조달하지 못했거나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건들이다. 울산 동구주상복합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총 480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지난해 시행사가 토지 매입과 인허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브릿지론으로 증권사·캐피털사 등에서 1000억 원을 조달했다. 시공사는 이 가운데 440억 원을 보증하고 1600억 원을 공사비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브릿지론 금리가 크게 오른 데다 미분양도 증가하면서 자체 자금으로 브릿지론을 갚고 사업에서 손을 뗐다. 앞으로 NPL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졌고, 대형건설사들마저 사업에 섰다 나서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달에 비해 7211가구(10.6%) 증가한 7만5359가구로 집계됐다. 문수빈 기자 bean@

“고금리에 자금조달 길 막혀 하반기 M&A 활발해질 것”

박성원 삼성KPMG 전무

올해부터 기업 구조조정 시작
리세션 대응센터 열고 준비중

“위기가 오면 오히려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불확실성에 리스크테이킹(risk-taking·위험감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때가 다른 경쟁사보다 앞서나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삼성KPMG 박성원(사진) 전무는 올해 주목할만한 인수·합병(M&A) 유형으로 △크로스보더 M&A △회생 M&A △사모펀드(PE) 바이아웃 등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호주 로이힐(Roy Hill) 광산사업 지분 매각을 성공시키는 등 아시아 M&A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박 전무는 우선 최근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이에 따른 자금 조달의 제약으로 M&A 시장이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유럽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불안감이 최고조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낙관적으로 바라본다면 하반기쯤 다시 M&A가 활발해질 것”이라면서 “사모펀드의 경우 아직 매수·매도자의 눈높이가 맞지 않아 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크로스보더 M&A의 경우,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때문에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해외 M&A를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2차전지 기업의 경우 광산투자 등이 활발한 가운데, JV(조인트벤처) 형태의 투자는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사진제공 삼성KPMG

전망했다. 삼성KPMG는 크로스보더 전문 부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 M&A 딜소싱, 글로벌 해외투자자의 한국기업 M&A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 중이다. 아울러 올해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를 고하면서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받아야 하는 기업들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KPMG는 올해 구조조정 자문을 위해 ‘Recession 대응 센터’를 열고 구조조정팀을 대폭 충원했다.

한편, 그는 올해 M&A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섹터로 ESG(제조업), 헬스케어·바이오, 2차전지 등을 꼽았다. 박 전무는 “특히 제조업은 탄소배출권 비용 문제가 커지면서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고민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올해 M&A 시장 관련 포인트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금리·인플레이션을 꼽았다. 박 전무는 “금리 상승세는 플랫폼해질 것”이라면서 “하반기에 모두가 M&A를 준비하고 있고, 해외기업 자본의 국내기업 투자(인바운드)가 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민 기자 si2020@

‘책임경영 의지’ 다올투자證, 경영진 차등배당 한다

보통주 1주당 150원 현금배당
배당성향 작년 10%서 18.9%로

다올투자증권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위해 차등배당을 실시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3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15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5.1%이며, 배당금 규모는 65억 원이다. 보통주 기준 배당성향은 지난해 10.0%에서 18.9%로 높아졌다. 이번 배당은 배당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 이목이 쏠렸다. 차등배당은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배당금 일부를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금



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통상 소액주주에게 이익을 더 많이 돌려주기 위한 방식이라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전년 대비 실적이 하락했지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 규모를 최대한 유지했다”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경영 의지에 따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배당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다올투자증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금난을 겪었지만, 최근 계열사 매각 등으로 유동성을 확보한 상황이다.

또 다올투자증권은 이사회에 앞서 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황준호(사진) 다올저축은행 사장을 신임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1963년생인 황 사장은 금융투자업계에서 36년 경력을 지닌 업계 대표 전략가로 유명하다. 그는 대우증권 부사장과 KTB투자증권(현 다올투자증권) 그룹전략부문 대표를 거쳐 현재 다올저축은행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배당과 사내이사 선임안은 24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선임절차가 완료되면 다올투자증권은 기존 이병철·이창근 대표 체제에서 이병철·황준호 ‘투톱’ 경영 체제로 전환된다.

주총 당일 임기가 끝나는 이창근 대표는 임기 만료 후에도 등기이사 부회장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손민지 기자 hand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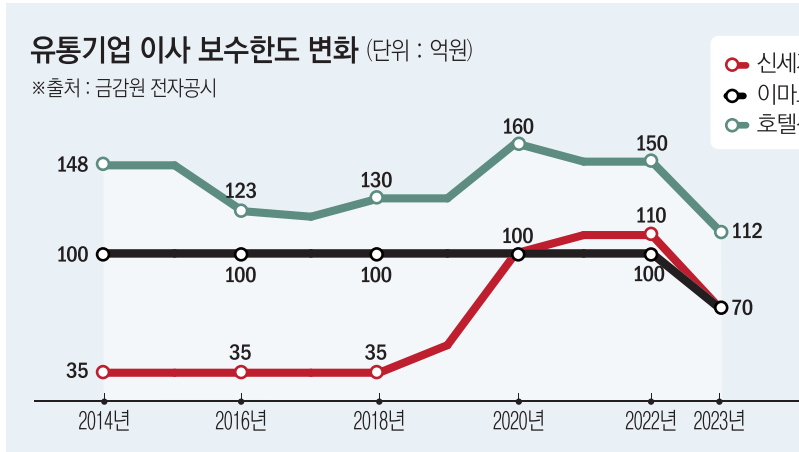
〈이사진〉

허리띠 죄는 유통가… 보수한도 줄여 비용 지출 최소화

이마트·신세계, 100억→70억
호텔신라, 150억→112억 하향
이사진 고액연봉 지급 오해 차단
대외적 긴축경영 의지 홍보 목적

유통업계 일부 기업들이 올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비용 절감에 나설 전망이다. 고물가에 소비 위축으로 경영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정 지출 비용을 줄여 실적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마트와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널, 호텔신라 등이 이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의 보수 한도를 줄이는 안건을 다룬다. 이달 29일 주총을 여는 이마트는 7명의 이사에 지급할 보수 한도를 종전 10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낮춘다. 이마트는 2011년 신세계에서 인적 분할된 이래 이사의 수와 보수 한도를 유지해 왔으



1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사의 보수 한도는 실제 지급되는 총액 대비 여유를 두고 잡아두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한 번 올려둔 한도를 굳이 낮추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럼에도 주요 기업들이 조정에 나선 것은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는 오해를 피하고, 실적 악화에 대비해 임원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긴축 경영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실제 신세계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린 것과 관련해 지난달 초 직급별 차등을 두지 않고 1인당 400만 원의 성과급 지급을 결정했을 때에도 임원들은 이를 받지 않기로 했다. 불확실한 경영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이사의 보수 한도라는 것이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상당한 격차가 있으나, 거액의 보수 한도를 책정해 두고 있으면 이를 다 받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나 올해 주총에서 이를 낮추게 됐다.

신세계그룹의 또 다른 주력 계열사 신세계도 23일 주총에서 이마트와 마찬가지로 보수 한도를 10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신세계는 2005년 정기 주총에서 이사의 수를 8명에서 7명으로, 보수 한도는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조정한 뒤 이를 유지해 왔다. 올해 주총에서 보수 한도 안건이 통과되면 18년 전 수준으로 되돌

아가는 셈이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이달 24일 주총에서 이사의 수는 7명에서 6명으로 줄이는 반면 보수 한도는 11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깎는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외형 성장에 따라 보수 한도를 지속해서 늘려 왔다. 2018년까지 35억 원이던 보수 한도가 별도기준 1조 원대 매출을 2년 연속 유지하며 안정한 2019년 50억 원으로 늘었고, 2020년 주총에선 100억 원, 2021년

110억 원으로 상향됐다.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신세계 그룹사들보다 보수 한도 변화가 잦은 편이다. 2015년까지만 해도 148억 원을 유지하다 2016년 123억 원, 2017년 120억 원으로 낮췄다. 이듬해 130억 원으로 재차 올렸고 2020년에는 160억 원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150억 원으로 다시 하향 조정했다가 올해 주총에서 112억 원으로 다시 내릴 예정이다. 최근



현대백 '단 하나뿐인 시계' 현대백화점은 16일까지 무역센터점 위블로(HUBLOT) 매장에서 '빅뱅 유니코 옐로우 사파이어-매직'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빅뱅 유니코 옐로우 사파이어', '빅뱅 유니코 옐로우 매직'은 전 세계에서 모델별로 100점만 한정 판매된다. 국내 판매 수량은 각각 한 점으로, 가격은 1억 원대와 4000만 원대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신세계 시코르 “메타버스로 1020 잡아라”

디지털 판매 채널 ‘메타 시코르’

신세계백화점은 뷰티 편집숍 시코르가 ‘메타 시코르’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메타 시코르는 메타버스 플랫폼 ‘젯’ 공간에 상품 구성, 인테리어 등 실제 시코르 강남점 매장을 배경으로 구현했다.

중앙광장, 게임존, 온리시코르존 등 테마별 공간 구성으로 시코르 상품 구매는 물론 게임을 통한 할인쿠폰까지 제공한다. 메타 시코르는 시코르닷컴 홈페이지와 시코르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중앙광장에서는 시코르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한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바디, 향수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인기 브랜드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게임존에서는 8일부터 14일까지 100% 당첨되는 뽑기 게임도 펼쳐진다.

신세계 시코르는 디지털에 익숙한 1020세대를 겨냥해 신규 판매 채널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3월부터 상시로 운영되는 메타 시코르는 나스, 맥 등 30여 개 브랜드의 대표 인기 상품 100여 개를 선보인다”고 말했다.

“대세는 대용량”… 고물가에 ‘쟁여두기 소비’ 확산

G마켓 제품거래액 1년새 12%↑
롯데홈쇼핑 대량구성 생필품 판매
CU도 ‘장보기 상품’ 라인업 확대

고물가 지속으로 필요한 상품을 대용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하는 절약형 소비가 확산하면서 유통업계가 대용량 생필품 판매를 늘리고 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용량으로 싸게 구매 후 두고두고 쓰는 ‘쟁여두기’ 소비가 확산하고 있다. G마켓은 올해 대용량 제품 거래액이 전년 대비 12%, 1+1 제품은 16% 늘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 20대 구매가 21% 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롯데홈쇼핑은 올해 1~2월 생필품 주문액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 이상 신장했다. 특히 치약 주문액은 2배 이상 증가했다. 2030 구매 고객이 50% 이상 늘며, 고물가에 저렴하게 구매 후 오래 쓰는 ‘쟁여두기’ 소비가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고객 선호도가 높은 인기브랜드의 생필품을 대량 구성,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인다. 9일 오후 3시40분, 액체 세제 브랜드 퍼실의 ‘디스크 킵스’를 판매한다. 무료 체험분 18개를 포함한 캡슐 148개, 주방 세제인 버넬 1종과 변기 물때 방지 효과가 있는 프레프 2종의 대용량 구성으로 준비했다.

10일에는 DSM의 비타민 C가 함유된 ‘텐티스테 치약’을 7종의 칫솔과 함께 판매한다. 여기에 16일 오후 9시45분 ‘최유라쇼’에서는 ‘유시몰 치약’을 선보인다. 지난해 6월 론칭 이후 누적 주문금액 30억 원을 돌파한 인기 상품으로 꼽힌다.

롯데온과 롯데마트, 롯데슈퍼는 유한킴벌리와 함께 29일까지 ‘생필품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연다. 롯데 단독으로 기저귀, 생리대 등 유한킴벌리의 인기 생필품 100종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내놓고, 추가 증정품 및 상품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15일

까지 화장지, 위생용품, 세제 등 유한킴벌리 인기 생활용품을 2개 이상 구매시 최대 50% 할인한다.

편의점 업계도 대용량 장보기 상품으로 고객 잡기에 나섰다. 편의점 CU는 대용량 생활용품을 출시하고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CU 측은 “그동안 1인 가구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소용량 상품을 선보였지만, 최근 편의점 장보기 보편화에 맞춰 대용량 제품을 선보인다”고 했다.

CU는 3~4인 가구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세제, 샴푸, 바디워시 등 대용량 생활용품 16종을 이달 출시한다. 대용량 생활용품 구매 고객에게 다화용 쇼퍼백을 무료 제공하고, 앞으로도 대용량 라인업을 꾸준히 늘릴 계획이다.

세븐일레븐은 3월 한 달간 80여개인 기성품을 할인하는 ‘굿민 세일’을 진행한다. 따뜻한 날씨에 수요가 증가하는 음료와 주류, 아이스크림 등을 행사상품으로 선정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3일 아이파크몰 용산점 7층에 위치한 플랜투스 2호점 오픈 행사에서 이우봉(왼쪽 네 번째) 플무원푸드앤컬처 대표가 관계자들과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플무원푸드앤컬처

플무원 비건 레스토랑 ‘플랜투스’ 용산역 아이파크몰서 2호점 오픈

오픈키친 형태 10인룸 포함 69석
2호점 특화메뉴 9종 등 14종 판매

플무원푸드앤컬처는 아이파크몰 용산점 7층에 비건 레스토랑 ‘플랜투스(Plantude)’ 2호점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플랜투스’ 2호점은 용산역 아이파크몰 테이스트파크 7층에 217.85㎡ 규모로 조리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오픈 키친 형태로 총 69석이 마련됐다. 고객 의견을 반영해 가족, 직장모임도 가능한 10인 룸도 마련했다. 10인룸은 전화를 통해 예약 가능하다.

지난해 5월 플무원푸드앤컬처는 코엑스몰에 플랜투스 1호점을 열고, 100% 식물성 식재료로 만든 메뉴 13종을 선보인 바 있다. ‘더 나은 일상을 즐기는 비거니즘’을 콘셉트로 한 2호점은 비건 식문화 확대를 위해 1호점과 일부 다른 메뉴를 판매한다. 메뉴는 1호점에서 인기를 끈 메뉴 5종과 2호점에만 만날 수 있는 메뉴 9종 등 총 14종이다.

또 플랜투스 2호점은 1호점과 동일하게 비건표준인증원 비건인증을 완료했다. 테이블의 태블릿 PC를 통해 주문과 메뉴사용재료, 영양성분, 칼로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비슷한 혐의, 다른 잣대’ 뇌물죄-청탁금지법 차이는

뇌물죄, 대가·직무 관련 따지고
제3자뇌물, 부정청탁 입증돼야

조국은 청탁, 김건희는 불인정
법조계 “유사한 사건인데 모순?
요건 따져 명확한 혐의만 적용”

최근 검찰의 반부패 수사에서 뇌물죄, 제3자뇌물죄, 청탁금지, 부패방지 등 혐의가 자주 등장한다. 같은 ‘검은 돈’에 이름도 비슷한데 적용은 달리 할까.

◇뇌물에 전달자 있으면 ‘제3자’…정보 흘리면 이해충돌=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경우를 규율한다.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노웅래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다. 제3자뇌물죄는 뇌물을 주고 받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는 구조다.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

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제3자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확인돼야 한다.

두 혐의의 차이를 이해하기 좋은 사례가 광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사건이다. 광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50억 원의 퇴직금(세후 25억 원)을 받았다. 광 전 의원은 하나는 행-화천대유 컨소시엄이 유지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병채 씨를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이 보는 범행 구조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광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병채 씨가 받은 것을 광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제3자뇌물죄 입증을 위해 서라면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하는데, 검찰이 이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도 제3자뇌물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했고, 그 대가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혐의가 인정되려면 후원금과 대가 관계를 이 대표가 인지했고, 그 대가성도 입증돼야 한다.

만약 뇌물의 액수가 커지면 가중처벌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뇌물액이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으로 올라갈 때마다 형량은 5년 이상, 7년 이상, 10년 이상으로 무거워진다.

또 공직자가 금품 등을 행기면 ‘뇌물’이지만 금품을 대가로 정보를 흘려주면 ‘이해충돌방지법’과 ‘옛 부패방지법’이 적용된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없어도 처벌가능=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법상 뇌물죄와 비교해 구성요건이 덜 까다롭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청탁금지법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례에 비교되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이다. 2016년 일부 기업들이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됐던만큼 이 협찬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팀 관

계자는 “조국 전 장관 사건은 장학금이라는 편법을 이용해서 (부정한 돈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으로 의율했고 김건희 여사 사건은 ‘협찬 계약’이라는 정당한 권한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 각 혐의의 구성요소를 따져본 뒤 각각 적용한다. 그렇다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최대한 많은 혐의를 중복으로 적용해야 할까.

법조계 전문가들은 혐의 구성 요건을 신중히 따져보고 명확한 혐의만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칫 모순에 빠질 수 있다”며 “아무리 비슷해 보이는 혐의라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사건과 공소사실을 구성할 때 한꺼번에 첨부하면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젓더미로 변한 인천 현대시장
5일 오전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 점포들이 화재로 검게 타거나 그을려 있다. 전날 오후 11시38분께 방화에 의한 큰불로 점포 212곳 가운데 55곳이 탔다. 경찰은 이날 오전 40대 용의자를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

“카톡으로 수업한 교수 해임은 부당”

法 “블랙보드 서버 불안정”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비대면 수업이 한창이던 때 카카오톡 등 외부 플랫폼을 이용해 수업했다는 이유로 교수를 해고한 학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5일 사립대 교수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청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9월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C 대학교 영어 전담 조교수로 신규 임용돼 근무했다. A 씨는 2016년 9월 부교수로 승진 임용됐다.

학교법인 B는 2020년 12월 C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 블랙보드가 아닌 행아웃, 팀스피크, 카카오톡 등 외부 앱을 사용해 수업을 진행하는 등 학사관리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A 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1월 해임된 A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청위는 징계 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A 씨의 해임을 취소했다.

하지만 학교법인 B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2021년 7월 징계위원회에 재차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A 씨는 다시 한 달 뒤에 해임됐다. A 씨는 이에 불복하고 교청위에 소청심사 청구를 냈지만, 교청위는 이를 기각했다.

A 씨 측은 “블랙보드는 수시로 서버가 다운되는 등 시스템이 불안정했고 학생들이 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블랙보드 이외에 줌, 행아웃, 카카오톡 등을 강의의 보조 도구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가 학교에서 10년 이상 재직하면서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해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이 사건 해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블랙보드 시스템이 불안정해 강의가 중단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고, 이는 원고가 다른 플랫폼을 사용한 동기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해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송석주 기자 ssp@

서울시,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5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 재개에 대비하는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여행사를 대상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서울 소재 종합여행업소 기업 최대 130곳에 각 500만 원씩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총 7억여 원으로, 여행사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올해 기준 외래관광객을 100명 이상 유치해야 한다.

서울 시내 여행업계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 유출을 겪었다. 실제 2021년 서울시 여행업계 종사자는 2만695명으로 2019년 대비 53.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방문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복귀는 미진한 상황이다.

시는 고용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여행사들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서울의 신규 관광자원 및 정책 현장에 대한 팸투어 참여를 지원한다. 또한, 관광업계 최신동향 및 각종 지원정책을 안내해 여행사별로 필요한 정보를 취할 수 있게끔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달 6일부터 서울관광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아 업체 적격 여부를 판단한 뒤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채빈 기자 chaebi@

곡성·영양·울릉 ‘아기울음소리’ 똑…출생아 통계 ‘0명’

작년 지자체 60% 1000명 미만
4년만에 전국 193개 학교 폐교
어린이집도 8248개나 사라져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가 24만9000명(잠정)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시군구 절반 이상에서 연간 출생아 수가 1000명 미만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 곡성과 경북 영양·울릉군의 출생아 수는 5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5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세종시·제주도 등 228개 지역 중 약 60%에 해당하는 136개에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1000명 미만에 그쳤다.

전남 곡성군, 경북 영양군, 경북 울릉군 등 3개 지역은 연간 출생아 수가 50명에도 못 미쳐 ‘0명’으로 발표됐

다. 통계청은 100명 단위로 지역별 연간 잠정 출생아 수를 발표하는데 0~49명까지는 ‘0명’, 50~149명은 ‘100명’으로 표기한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어 따라 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인구가 밀집된 서울에서도 문을 닫는 학교와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추세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193개가 폐교됐다. 이 중 90%에 달하는 171곳이 서울, 인천, 경기 등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위치한 학교였다. 서울에서도 2020년 강서구 염강초등학교, 공진중학교가 폐교했고 올해 광진구 화양초등학교도 문을 닫았다.

어린이집 수도 줄고 있다. 2018년 말 3만 9171개에서 지난해 말 3만 923

개로 4년 만에 21%에 해당하는 8248개의 어린이집이 사라졌다. 0~1세의 영아 돌봄을 주로 담당해온 가정어린이집 사정은 더 심각하다. 같은 기간 1만 8651개에서 1만 2109개로 가정어린이집 35.1%가 급감했다.

고질적인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수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북 무주군·강원 평창군 등 전국 16개 지자체에는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전무했다.

산부인과 없이 소아과만 있는 지자체는 6곳, 소아과 없이 산부인과만 있는 지자체는 4곳으로 조사됐다.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문을 닫은 소아과는 연평균 132개, 산부인과는 55개에 달한다.

박꽃 기자 pgot@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우수상
에브리틱 팀 윤준성 김용운 양정구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창업 지원도 취업 지원도
하나금융그룹이 함께합니다

하나소셜벤처
유니버시티바로가기



하나금융그룹 ESG 캠페인

.....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하나금융그룹과 고용노동부 그리고 전국 협력 대학이 함께
지역 청년들의 차별 없는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위해 크립토 특성 알아야”

신수환 한빛코 법무팀장 겸 준법지원팀장

자금세탁방지협회가 새로 개설한 CCAS 자격증 국내 첫 취득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위해 내부통제·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대다수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첫 번째 목표는 실명계좌 확보다.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 입장에서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은 중요 평가 요소다. 이에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AML 인력을 충원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자금세탁방지전문가 자격증은 공인자금세탁방지자격증(CAMS)과 공인국제제재전문가(CGSS)로 구분된다.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인 한빛코는 CAMS 소유자를 지난해 2명에서 9명으로 끌어올리고 CGSS 소유자도 2명 확보하며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CAMS와 CGSS는 ACAMS(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에서 발급해주는 자격증이다.

신수환<사진> 변호사는 한빛코에서 법무팀 및 준법지원팀장을 맡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전문가 자격증인 CCAS를 국내 최초로 취득했다.

CCAS는 ACAMS가 지난해 말 새로 개설한 자격증이다.

신 변호사는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와 AML 관련 전문성을 동시에 가지는 생각보다 어렵다”며 “CCAS를 준비하며 두 가지 역량을 모두 갖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해 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AML 전문가들이 AML뿐만 아니라 크립토의 기술적 요소, 크립토 거래의 특성 등 깊이 있게 아는 것이 AML 업무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한빛코는 은행과의 실명계좌 계약 체결을 위해 내부통제 및 AML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자체 교육과 취득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증 보유 인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나해부터 은행과의 실명계좌 협의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가진 맹점 중 하나가 바로 정보 비대칭이다. 앞으로의 규제 방향도 정보 비대칭의 해소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신 변호사의 주장이다.

신 변호사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이슈인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문제 삼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

비스 점검에 나섰다.

신 변호사는 “거래소의 운용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국내 거래소의 단순 스테이킹 대행 서비스는 증권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예를 들어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보유자가 검증에 참여한 대가로 받는 기술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구현되는 채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사용 수수료를 받는 것을 투자 계약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예치의 성격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예치는 증권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또한, SEC는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위험 관련 정보 제공이 부족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신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으로 기존 금융상품과 비교했을 때 정보 비대칭성이 큰 시장으로 판단한다”며 “거래소, 가상자산 발행 재단 등 시장 참여자들에게 적절한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의 한계 또한 명확하게 규정해야 규제 대상들도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사진제공 한빛코

김영태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서울대병원 신임 병원장에 임명

서울대병원은 제19대 병원장에 김영태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를 임명했다. 임기는 6일부터 2026년 3월 5일까지 3년이다.

김영태 신임 병원장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서울대병원 폐암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심폐기계중환자실장, 암진료부문 기획부장, 중환자진료부장, 전임상실협부장, 의생명동물자원연구센터장, 흉부외과과장, 흉부외과학교실 주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외에 아시아흉부심장혈관학회(ATCSA) 조직위원회 사무차장, 세계최소침습흉부외과학회(ISMICS) 이사, 대한흉부외과 국제교류위원, 대한임학회 이사, 대한폐암학회 이사장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세계폐암학회(IASLC) 아시아 대표 이사를 맡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남부발전 기술안전 부사장
심재원 前 사업본부장 선임

심재원 전 한국남부발전 사업본부장이 신임 기술안전부사장으로 선임됐다.

3일 남부발전은 부산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상임이사 자리에 심 전 본부장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심 전 본부장은 1991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한 후 남부발전 대외사업개발팀장, 감사실장, KOSPO 영남파워 대표이사, 남부발전 신인전빛드림본부장 등을 지냈다. 내부출신인 만큼 전문성을 발휘해 부사장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박준상 기자 jooonoon@



서예단체 검수회, 사단법인 출범 기념 세미나 열어



서예단체 검수회(兼修會·이사장 손창락·오른쪽 두 번째)의 사단법인 출범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3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검수회의 지도소승인 하석 박원규(네 번째) 씨의 서예와 전각을 주제로 한 발표와 질의응답 등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행사에는 문화상(다섯 번째) 전 국회의장, 김황식(세 번째) 전 국무총리, 김명곤(여섯 번째) 전 문화부 장관,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 및 송하진(첫 번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장, 송현수 한국서예협회 이사장을 비롯한 서예계 인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8월 창립총회를 마친 (사)검수회는 올해 1월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승인과 법인 등록 절차를 거쳐 정식 출범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공군 블랙이글스, 호주 에어쇼 종합 최우수상

강원도 원주에서 호주로 1만km 날아간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올해 처음 참가한 호주 국제 에어쇼에서 종합 최우수상을 받았다.

5일 공군에 따르면 블랙이글스는 호주 애벌론공항에서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펼쳐진 2023 호주 애벌론 국제에어쇼에서 종합 최우수상을 받았다. 블랙이글스의 국제 에어쇼 수상은 지난해 영국 리아트(RIAT) 에어쇼 최우수상-인기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특히 블랙이글스가 호주에서 받은 종합 최우수상은 애벌론 국제에어쇼 사상 최초로 수여된 것으로, 블랙이글스는 ‘초대수상자’로 이름을 남겼다. 애벌론 국제에어쇼는 세계 항공우주 전문가, 국방 관련 관계자, 일반 관객이 참석하며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박람회 등이 함께 열리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2023 호주 애벌론 국제에어쇼에서 ‘종합 최우수상(Best Overall Display)’ 수상이 확정되자 환호하며 수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 공군

남반구 최대 국제에어쇼다.

블랙이글스는 주최 측 공식 초청으로 처음 참가해 행사 중 매일 1회 30여 분간 에어쇼를 펼치며 태극 기동을 포함한 24개의 특수 기동을 선보여 현지 언론과 25만 관람객의 찬사를 받았다.

장대명 기자 dmjang@

고진영, 완벽 부활...태극낭자 18대회 무승 끊었다

HSBC 2연패하며 1년 만에 V, LPGA투어 통산 14승째

고진영<사진>이 완벽하게 부활했다. 고진영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서 작년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고진영은 5일 싱가포르의 센토사 골프클럽 탄종 코스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의 성적을 낸 고진영은 지난해 대회 이후 1년 만에 LPGA 투어 대회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27만 달러(약 3억 5000만 원)다.

지나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하반기부터 손목 부상으로 고전한 고진영은 지난주 혼다 타일랜드에서 공동 6위로 7개월 만에 LPGA 투어 톱10에 복귀했고, 이번 대회에서는 우승까지 차지하며 부활을 알렸다. 올해 세 번째 대회에서 시



즌 첫 승을 거뒀고, 투어 통산 14승째다.

한국 선수가 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지난해 6월 메이저 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전인지 이후 19번째 대회만이다. 이 대회에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한국 선수들이 우승했다.

장대명 기자 dmjang@·사진 AFP연합뉴스

아이스댄스 주니어 세계선수권 아시아 첫 메달

임해나·취안에 銀...여자 피겨 신지아는 2회 연속 銀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의 한국 간판 선수인 임해나(19·사진 위)·취안에(22) 조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 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2위에 오르며 아시아 최초로 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여자 싱글 ‘샬럿’ 신지아(15·영동중)도 2회 연속 은메달을 획득했다.

임해나·취안에 조는 5일(한국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 윈스포트에서 열린 2023 ISU 주니어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아이스댄스 프리댄스에서 기술점수(TES) 55.09점, 예술점수(PCS) 48.22점으로 합계 103.31점을 받아 전날 리듬 댄스의 71.08점을 더해 총점 174.39점으로 1위 카타리나 트라스코바-대니얼 트라제크(체코·177.36점)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 대회 아이스댄스 종목에서 한국 선수는 물론 아시아 선



수가 입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4일 열린 여자 프리스케이팅에서 신지아는 기술점수(TES) 70.27점, 예술점수(PCS) 61.44점, 감점 1점 합계 130.71점을 받아 쇼트프로그램 점수 71.19점을 합친 최종 총점 201.90점으로 일본의 시마다 마오(224.54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장대명 기자 dmjang@·사진출처 ISU 소셜미디어

인사

◆교육부 △한국해양대 사무국장(인사교류) 이안호

◆고용노동부 ◇과·팀장급 전보 △정보화기획팀장 김재훈 △직업능력평가과장 김동욱 △부산고용센터소장 김상용 △대구고용센터소장 박희경 △청주지청장 김경태 △충주지청장 이점석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 김진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우동

부음

▲지상균 씨 별세, 정명숙 씨 남편상, 지경근·경훈(이투데이 수습기자) 씨 부친상 = 4일, 서울 홍익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 02-2600-1444

▲이고미 씨 별세, 조만식(전 대구은행 성서남지점장)·정옥 씨 모친상, 문영희(전 구미 형남초교 교사) 씨 시모상, 김규백 씨 장모상 = 5일,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01호실, 발인 7일 낮 12시 30분, 053-200-6141

▲김형민(전 오수중 교장) 씨 별세, 김홍국(전 경기도 대변인)·태완(서울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현숙(서양화가)·정숙(주한 가봉대사관) 씨 부친상, 양재호(연세소아과 원장)·한호성(주네고팩 이사) 씨 장인상, 조정선(드라마 작가) 씨 시부상 = 4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 발인 7일 오전 7시, 010-2685-3772

김해동의 기후 이야기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으로부터 36년이 지난 올해 드디어 오존층을 프레온 가스 개발 이전 상태로 돌려놓은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프레온가스 대체물질로 개발된 수소 불화탄소의 생산과 사용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이 물질은 염소를 포함하지 않기에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지만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가스이다.

1월 초에 유엔환경개발(UNEP)은 ‘오존층 감소에 대한 과학적 평가(SAOD): 2022’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기상기구(WMO)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이 공동으로 4년 주기로 발간한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오존층 파괴 원인물질 규제정책이 지금처럼 이행된다면 향후 40년 안에 오존층이 1980년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평가이다.

오존층 회복 가능 소식은, 인류가 1972년에 스톡홀름 유엔인간회의를 통하여 지구환경오염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거둔 반가운 성과이다. 탈레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도 오존층 파괴 대응에서 이룬 성과를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거두어가자는 희망찬 목소리를 냈다. 오존층 파괴문제를 해결해온 긴 여정과,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숙제를 알아보자.

지구대기에서 기상현상이 발생하는 최하층대기를 대류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두께는 대략 6(극지방)~16km(적도지방) 정도이다. 대류권은 지상에서 상공으

로 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 대류권 상부에서 고도 20km 정도에 걸쳐서 고도에 상관없이 기온이 같은 등온대기가 나타나는데, 이를 대류권계면이라고 한다. 대류권계면 위에서 고도 50km 부근까지가 성층권이다. 성층권에서는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온이 오히려 상승한다. 그래서 상하층의 공기가 혼합되지 않는데, 이런 상태를 성층이라고 부른다.

오존층은 오존이 밀집해있는 대기층을 말하는데, 성층권 하부 대기(20~30km)에 나타난다. 오존층의 역할은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여 차단하는 것이다. 태양의 자외선은 이곳에서 거의 대부분 흡수되고,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에는 가시광선과 적외선만 남는다. 자외선은 매우 강한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오존이 자외선을 차단해주지 않는다면 지상에 생물이 살아남을 수 없다. 오존층은 지상 생물을 보호하는 파수꾼인 셈이다.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 지구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게 된다고 우려하는데, 오존층이 파

괴되어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된다. 이렇게 소중한 오존층이 파괴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1970년대 초에 세계적인 화학업체인 듀폰사가 냉매제로 프레온가스(CFC13)를 개발하였다. 이 물질은 분자량이 큰 무거운 기체이고 화학적으로 대단히 안정돼 대기 중에서 좀체 분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기체는 자연에 해를 주지 않으면서 활용성이 높은 꿈의 물질이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곧 이에 대한 반론이 나왔다. 1975년에 몰리나와 크뤼첸이 프레온가스가 무거운 기체이지만 저기압하에서 상승기류를 타고 대기상공으로 올라갈 수 있고, 상층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분해되어 염소원자가 발생할 것이며 그것이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1981년에 사이언스지에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지적한 논문을 발표하여 화석연료 기업과 그에 협력적인 과학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한센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큰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1979년

에 영국 과학자들이 남극 상공에서 봄철에 오존이 크게 훼손되는 현상(오존홀)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세상은 큰 충격에 빠졌다. 몰리나와 크뤼첸은 1995년에 이 업적으로 노벨화학상을 받게 된다. 세계는 1985년 3월에 오존층 보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맺었다. 이어서 1987년에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를 생산하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말자는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하였고, 이 협약은 2년 후인 1989년에 국제법으로 발효되었다.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으로부터 36년이 지난 올해 드디어 오존층을 프레온가스 개발 이전 상태로 돌려놓은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프레온가스 대체물질로 개발된 수소불화탄소의 생산과 사용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이 물질은 염소를 포함하지 않기에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지만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가스이다. 이것을 퇴출하는 일이 오존층 보호를 위한 여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숙제이다.

논현로

김재수

동국대 석좌교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얼마 전 퇴직한 농림공직자 모임인 ‘농우회’ 총회가 열렸다. 나이 아흔이 넘은 선배들도 출석했고 최근 퇴직한 후배들 참여도 높았다. 정치권 이슈도 논의되었지만 최근 대두된 ‘스마트 팜’이나 ‘푸드테크’(Food-tech) 등 새로운 농업 과제에 대한 논란도 많았다. “잘 알지도 못하겠고”, “고령화된 농촌현장에서 제대로 적응하겠느냐”는 우려도 많았다. 절반은 맞는 이야기다. 급변하는 시대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챗 지피티’(Chat GPT) 이야기를 하면 잘 모른다.

농기계회사 대표의 CES 기조연설

6·25 전쟁을 몸소 겪었고, 농업 근대화로 먹거리를 해결하였던 선배들의 진심이 담긴 충고는 소중하다. 선배들이 강조하는 식량 안보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사료값 상승, 물가 인상 등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디지털 농업, 데이터 농업, 정밀 농업, 스마트 팜 등 기술 변화도 엄청나다. 여기에 이른바 ‘세대 간 고민’이 있다. 구세대와 신세대가 현장과 정책을 보는 인식에 많은 차이가 있다. 인

스마트팜·푸드테크·챗GPT 시대 한국농업

식차이를 극복하고 국가발전에 동참시키는 것도 큰 과제이다.

농업 기술발전은 상상을 초월한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소비자 가전제품 전시회(CES 2023)에서 실시한 존 메이의 기조연설이 화제다. 잘 알려진 존 디어 농기계회사의 대표 연설이라 필자도 몇 번 되풀이해서 들었다. 농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하며 인류 역사에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강조한 연설이었다. TV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 전시 행사에서 농기계 회사 대표가 기조연설을 한 것은 56년 행사 역사상 처음이다. 농업 관련 기술 산업인 ‘에그테크’(Ag-tech) 산업이 세상을 변화시켜 농업과 비농업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의 선두에 식품 관련 ‘푸드테크’ 기술이 자리 잡는다. 인공음식점 매장에서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로 주문하고 배달 로봇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는 장면을 주변에서 쉽게 본다.

눈부신 농업기술의 발달과 대조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도 많고 넘어야 할 고비가 험난하다. 첫째, 221만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47% 정도

로 고령화된 농촌 현실이다. 이들을 제외하고 젊은 비농업인 중심의 스마트 팜 운영에 비판이 많다. 농업 부문의 불가치기를 비농업 종사자가 가져가는 데 대한 불만도 증대된다. 스마트 팜에 농업인 참여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과 유류가격 상승도 당면한 애로이다. 1년 사이에 3배나 오른 전기요금을 두고 걱정이 많다. 문재인 정부 비난을 넘어 시급히 농촌의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스마트 팜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나 진입장벽도 너무 많다.

세대간 융복합 통한 미래 도약

둘째,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집중적 투자 지원을 해야 한다. 스마트 팜 분야의 우리 기술 수준은 아직 뒤떨어져 있다. 유럽연합(EU) 기술 수준을 100으로 보면 우리 기술 수준은 70 정도로 4년의 기술격차가 난다. 미국은 92, 일본은 72 수준이다. 기술개발에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기술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성과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 31조 원 규모에 이르는 국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효과성에 의문을 가진다. 1조 3000억 원에 불과한 농업부문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기술개발은

농산물 수출과 직결되고 농산업 영역을 크게 확산한다. 디지털기술, 인공 지능(AI), 로봇, 무인화 등 다양한 융복합 기술이 농업 분야 수출중대로 이어진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122억 달러 수준이다. 먹는 농산물과 식품뿐만 아니라 농기계, 자재, 스마트 팜 등도 유망한 수출 영역이다.

셋째, 과거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노하우를 잘 살려야 한다. 중동 시장이다시피 온른다. 25억 이슬람권 인구가 가지는 경제적 위력을 실감한다. 과거 아랍에미리트(UAE)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 전력 고위관계자로부터 UAE 원전 수출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는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중동 시장 거점 마련은 시장 개척의 교두보가 됐다. 2015년 UAE에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 중동지사를 설립해 이슬람권 식품시장의 정보 수집, 박람회 개최, 한국 식품 홍보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수출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스마트 팜, 푸드 테크, 챗 지피티 시대에도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 간다. ‘세대 간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해야 하는 것을 농업 분야가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조지아 오키프 명언

“아름다운 꽃도 잠시 멈추고 바라보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 없듯, 무언가를 바라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친구가 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미국 화가다. 사진작가 앨프레드 스티글리츠 부인. 뉴멕시코 사막에서 은둔하며 그림을 그렸다. 두개골, 짐승의 뼈, 꽃, 식물의 기관, 조개껍데기, 산 등 자연을 확대한 주제로 그렸다. 대표작은 ‘검은 붓꽃’ ‘암소의 두개골’ ‘적, 백, 청’ 등이 있다. 오늘은 그녀가 숨진 날. 1887~1986.

☆ 고사성어 / 지음(知音)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뜻으로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이르는 말이다. 열자(列子) 탕문편(湯問篇)이 원전. 거문고 명수 백야(伯牙)가 높은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으로 타면 친구 종자기(鍾子期)는 옆에서, “하늘을 찌를 듯한 산이 눈앞에 나타나 있구나”라며 응수했다.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며 거문고를 탈 땐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눈앞을 지나가는 것 같구나” 하고 감탄했다. 그런 종자가 죽자 백야는 거문고를 부수고 줄을 끊어 다시는 타지 않았다.

☆ 시사상식 / 통제의 환상(Illusion of Control)

사람들은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통제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외부환경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일종의 착각이다. 생일 등 자신에게 의미 있는 번호를 직접 지정하는 자신의 행동이 복권 당첨을 가져온다고 믿는 게 좋은 예다.

☆ 우리말 유래 / 도루묵

소득 없는 헛수고를 뜻한다. 선조가 임진왜란 때 피난 중 처음 보는 생선을 먹었는데 별미였다. ‘묵’이라는 이름이 보잘것없어 은어(銀魚)로 고치라고 했다. 파난이 끝나고 다시 청해 먹었으나 예전과 맛이 다르자 “(은어를) 도로 묵이라고 해라”고 일렀다고 한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남주현 / 유통바이오부



연초부터 몸값 비싸기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식품·외식 광고에 대거 등장해 팬심을 흘린다.

마케팅 전문가를 수장에 앉힌 한국맥도날드는 대세 아이돌 ‘뉴진스’를 모델로 내세워 홍보에 나섰다. 한국파파존스 피자도 전속 모델로 걸그룹 ‘아이브’를 발탁했다. 대상 청정원은 ‘햇살담은’ 브랜드 모델로 대세 트로트 가수 임영웅을 선정했

고, 롯데칠성음료는 ‘처음처럼’의 모델로 한소희를 내세운다.

삼양식품은 이서진과 정유미를 비롯해 기생총과 이태원클라쓰로 글로벌 스타로 급부상한 박서준과 최우식, K팝 대표 아이돌 BTS(방탄소년단)의 뷔가 출연하는 tvN ‘서진이네’의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고, 농심은 배홍동 모델로 연예인 유재석을 3년째 발탁했다. 오후기도 지난해 말부터 BTS의 진을 진라면 얼굴로 앞세우고 있다.

‘가격’ 인상하더니 ‘스타마케팅’

지독한 불경기가 전망되는 2023년에 맞서 식품·외식업체들은 주요 전략으로 ‘스타마케팅’을 짰한 모습이다.

잘 고른 모델은 회사도 먹여살릴 정도로 중요한 전략이지만, 문제는 ‘타이밍’이다. 불과 수개월 전 해당 업체는 치솟는 원재료 값과 물류비 등 원가와 비용 증가를 이유로 가격 인상에 나선다고 하소연하지 않았던가. 오랬나무 아래서 갇힌 고쳐매지 말라했는데, 이쯤되면 ‘스타마케팅’ 비용 마련을 위해 판매가를 올렸

는지 착각이 들 정도다.

경기부진 타계 전략이 연구·개발에 따른 신시장 개척이나 효율성 추구 등이 아니라 팬심에 기대거나, 이슈몰이에 그친다면 실망이 크다. 가격 인상에 따라 더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스타마케팅에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유쾌할 소비자는 많지 않다. 원가 급등에 따라 ‘아쩔 수 없어’라는 핑계에 고개를 끄덕였던 수많은 소비자들이 느꼈을 배신감도 고려해야만 했다.

인기 연예인의 광고가 웃프다. 이제 ‘스타마케팅’이 매출을 방어하는 ‘약’이 될지, 돈만 쓰고 소비자의 반발을 일으킬 ‘독’이 될지 지켜볼 시간이다. jooh@

사우디 네옴 프로젝트와 新중동북의 꿈

작년 11월 사우디왕세자의방한 때 국 내 언론에 ‘네옴’ 신도시 프로젝트가 대 서특필됐다. 그 보도를 보고많은 기업들 이 과거 중동 건설 붐에 상당한 ‘신(新) 중동 붐’의 꿈에 부풀어 있는 듯하다. 요 즘 경제가 어렵다보니 네옴 프로젝트에 기대가 큰 것은당연하다. 필자도 그것이 수출감소와 내수 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호재가 되기를 희망한 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만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네옴’은 사우디 북서부에 복합 스마트 시티를 개발하는 총 사업비 1조 달러의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네옴은 현재 계획 상 4개 구역으로 나뉜다. 170km 길이에 높이 500m 고층건물을 200m 폭을 두고 2열로 건설해 주거·업무공간으로 활용하 는 ‘더 라인’, 내륙 산악지대에 인공호수·스키장 등의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트로제나’, 홍해 연안 해상에 50여㎢ 규모의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육사 곤’, 아카바만 입구의 섬에 84㎢의 고급 레저휴양지를 건설하는 ‘신달라’가 그것 이다. 하나하나가 기발한 아이디어라서 세간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이 사업은 2017년 10월 발표된 후 2020년까지 개념설계와 계획수립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부터 본격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지 정보에 따 르면 아직도 구체성이 부족해 계속 보완 하면서, 일부 구역은 터파기 작업이 시작 됐다고한다. 당초 계획한 2030년까지전 체 사업이 완료되기는 어렵고 적어도 50 년 이상 걸릴 거라는 의견도 있다.

작년 네옴 프로젝트가 국내에 자세히 알려지자 건설업체엔 황금알을 낳는 거 위치럼 인식되고, 증시에선 네옴 관련주 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네옴 프로

권평오의 해시견문 (海市見聞)

전 코트라 사장



1970년대 건설 붐과 상황 달라 기회요인 맞지만 불확실성도 커 중립적 시각서 프로젝트 꾸려야

젝트가 발표된 시기에 그곳에서 대사를 지내서인지 필자에게 많은 문의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그런데 사전에 그 사 업의 성격과 중동의 특성을 제대로 인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현지 근무 경험과 정보를 토대로 이 프로젝트에 임 하는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몇 가지 조언 할까 한다.

첫째, 신중동 붐이 될 거라는 막연한 환상을 버리고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한 다. 네옴 프로젝트는 천문학적비용의 조 달방안, 일부 사업의 기술적·환경적 문 제점, 개발수요 충족 여부 등 많은 해결 과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당초 계획보다 훨씬 장기화되고, 앞으로 실행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크다. 또 당장 프로젝트에 참가하더라도 중동 특유의 느린 의사결정과 투명성 부족 등의 어려 움도 극복해야 한다. 과거 우리 기업 중 엔 초기에 프로젝트 수주에 급급하다 뒤 에 대규모 적자 등 낭패를 본 사례가 있었 다. 네옴 프로젝트에서는 철저히 검토해 서 바람직한 참여방안을 정해야 한다.

둘째, 현재 상황이 1970~1980년대 중 동 건설 붐때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인 식해야 한다. 과거엔 우리 인건비·자재

비가 싸기 때문에 중동에서 단순시공 (EPC) 일감을 많이 수주했고, 이에 따 른 인력과 기자재 수출 등의 효과도 컸 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비용경쟁력의상 실로 일반EPC사업에서는중국·인도 등 개도국 기업을 이길 수 없다. 설령 프로 젝트를 수주했다 할지라도 채산성을 맞 추려면 제3국 인력과 기자재를 써야 하 므로 국내로 돌아오는 부가가치가 크지 않다. 이제는 개도국들에게 없는 기술과 기획력으로 차별화하고, 그들이 희망하 는 제조업 투자와 연계하여 참여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시각으로만 네옴 프로젝트를 접근하는 자세는바람직하지 않다. 현지에서는 한 국기업에 기회가 있을 분야로 수처리·재 생에너지·에너지저장·수소 등을 추천하 는데, 이들비(非) 건설 부문과 부가가치 가 높은 건설프로젝트를 묶어서 진출방 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네옴 프로젝트와 관련한 불확실 한 정보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종종 외신에는네옴 프로젝트가 끝 까지 추진되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 의견 이 보도되곤 한다. 그러나 젊은왕세자가 강력한 카리스마로 지휘하고 있고, 2029 동계아시안게임을 네옴에서 개최 키로 확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차는 있을지언정 도중에 중단될 가능성은 작 아 보인다. 너무 이상적이지도, 너무 부 정적이지도 않은 중립적인 시각에서 바 라봐야 한다.

‘네옴’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분명 좋 은 기회요인인 것은 맞지만 위험과 불확 실성 또한 크다. 부디 현지 특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올바른 접근전략을 통해 이 프로젝트가 ‘신중동붐’의 촉매가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5% 안팎’ 성장 제시한 시진핑 3기 체제

중국의제14기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어제 베이징 인민대회 당에서막을 올렸다. 앞서 전날 같은 장소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도 개막했다. 전인대는 우리 국회에 해당하며 정협은 최고 권위 의 자문기구다. 전인대와 정협은 매 년 3월 비슷한 시기에 열려 양회로 불린다.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 과 경제패권을 다툰 정도로 성장한 인구대국 중국이 앞으로 나아갈 대략적 방향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특 히 이번 양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기 집권체제 출범을 공식적으로 대 내외에 선포하는 각별한 의미를 담 고 있다.

3기 체제의 선택은 일차적으로 14억 명 중국인의 명운을 좌우하지 만 대한민국에도 강 건너 불일 수 없 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특히 경제 측면에서 긴밀한 공조관 계를 유지해 왔다. 한국은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완제품을 만들어 세계에 공급했다. 양국 모두에, 그리 고 세계 시장에 득이 된 교역 공식이 다. 하지만 대중 무역 흑자는 지난해 95% 급감했다. 22년 무역수지 흑자 국가 명단에서 중국은 더 이상 상위 에 있지 않다. 22위에 그칠 뿐이다. 글로벌 경기 탓에 지난해 주요 수출 국들이 대체로 수출 부진을 겪었으 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더 부진했다.

대중 수출 부진이 크게 작용했다. 과 거의 달콤한 추억은 뒤로하고 중국 의 오늘과 내일을 직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어제 전인대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정부 업무보고 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중국 정부 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발표 를 생략한 2020년을 제외하면 성장 률 목표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 지도 부는 2006년 이후한동안매년8%선 의 목표성장률을 제시했고, 매년 이듬해에는목표치를웃도는 성과를냈 다고 발표했다. 2012년 이후에도 7%를 웃도는 목표를 내걸고 경기 부 양에 주력하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 국 정부가5%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사실상 저성장을 공식화한 셈이다.

시 주석의 중국은 하필이면 장밋 빛청사진을제시해야하는3기 선포 식 석상에서 과거와 결을 달리하는 수치를 선택했다. 범정부 차원의 전 폭적 부양책으로도예전처럼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무리라고 인정한 것 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 또한 3기체제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접고 현실에 부합하는 대응 청사진을 짜 야 한다. 미·중 갈등이 더 이상 지정 학적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사실 도 깊이 숙고할 일이다.



특허, 특! 변리사 특허청장 사퇴운동 하는 변리사회

변리사들이 변리사 출신 특허청장 사 퇴운동을 하고 있다. 특허침해소송을 변 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 도록 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지지하던 특 허청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갑자기 기존 입장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 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지만 법원에서는 변리사의 민사본안 소 송 대리권을 부정한다.

2010년 서울고등법원의판결(서울고 법 2010나33219)도 “특허 등 침해 소송 에 관하여 영국, 독일 및 일본 등에서는 변리사의 변호사와의 공동 소송대리권 을 허용하고 있지만, 단독으로 변리사에 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외국 입법 예 는매우 드물다”면서 “변리사에게 민사본 안소송에서 소송 대리권을 허용할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결단에 달린 문제이다” 라고 밝혔다.

위 판결의 입장에 대응해서 대한변리 사회는입법자인 국회의 결단을위해, 특 허 등 분쟁에 관한 민사소송에 변리사 단 독대리에서 변호사와 공동소송대리로 양보한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했다. 판결

후 12년이 지난 2022년 5월 12일 변리사 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를 통과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변리사인 이인실특 허청장이 취임하면서 “특허분쟁은 비용 부담이 매우 커 중소·벤처기업에는 기업 의 존망을 좌우하는 일”이라며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제도를 통해 공 정하고 합리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023년 2월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특허청장은 입장을 바꾸어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위원들의 반복되는 질문에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고, 결국 변리사법 개정안 은 추가논의를 위해 법안의 무덤으로 불 리는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되었다.

다음 날인 2월 24일 열린 대한변리사 회 총회에서는 특허청장 퇴진을 촉구하 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3월 3일에는 특 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400여 명의 변 리사가 특허청장 사퇴와 특허침해소송 에서 변리사·변호사의 공동대리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도대체 특허청 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문한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마감 후

박 병 립

정치경제부 부장대우



나이가 들수록 이마가 넓어지는 것 같 다. 아내는 M자형 탈모 전조라는 진단 (?)을 내렸다. 다행히 머리카락이 있는 편 이라 그리 티가 나지 않는다고 믿고 싶다. 머리가 빠지고 탈모증세를 겪는 젊은 이들이 적지 않은 듯하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탈 모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2020년 기준)은 23만3000명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4만8000명, 30대가 5만 2000명, 40대가 5만 명이다. 30대가 가 장 많았지만 20대도 5만 명에 육박하는 걸 보면 젊은이들의 고민이 느껴진다. 탈 모 치료제 등 진료비로 30대는 약 16만 2000원, 20대는 14만5000원 정도를 쓰 고 있다고 한다.

탈모 건강보험 적용의 정치적 의도

탈모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탈 모 환자들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한다. 서 울 성동구는 작년 5월 조례를 제정했고 만 39세 이하 탈모 환자에게 연간 20만 원, 치료제 구입비 일부를 달마다 지원하 기로 했고 충남 보령에서도 올해부터 만 49세 이하를 대상으로 연간 2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내 가족에 탈모·암 환자가 있다면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이들이 겪는 탈 모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본다. 다만 재정적 여유가 없다면 과연 탈모에 건강보험 또는 지자체의 지 원금을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선 의구 심이 든다.

정부가 최근 암 등 중증·희귀질환자에 대한 산정특례제도를 손본다고 한다. 문 재인 케어의 대표적인 암 등 중증·희귀질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5~10%로 낮게 적 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줬는데 건강보 험 재정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지원을 줄 이겠단 것이다. 질환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합병증은 특례 적용을 제외하 고, 105개 경증 질환부터 제외 대상을 정 한 것. 하지만 합병증인과관계를 증명하 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전 정권(문재 인) 지우기의 일환 같기도 하다.

암 등 중증·희귀질환 치료는 참으로 힘 든 과정이다. 항암치료로 환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체중은 줄어 빠만 앙상하게 남기도 하고, 머리카락· 눈썹 등 온몸에 있는 털이 대부분 빠지기도 한다. 환자가 그 고통을 이겨내 증상 이 호전되면 그다음으로 과중한 치료·입 원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탈모 는 이에 비해서 고통이 덜할 것이다.

주요 투표층을 공략해 표를 더 얻기 위 한 정치적인 이유도 담겼다고 본다. 암

환자는 물론 가족들은 치료와 병간호로 투표가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 탈모 증 상이 있는 유권자들은 암 환자 가족보다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그렇다면 참으로 알팍한 술수다.

중증·희귀질환 산정특례는 손본다?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이유로탈모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려 하고 암 등 중증에 대해선 건강보험을 줄이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 사안의 경중, 일의 우선순위가 있 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 탈모로 인 해 면접 등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이를 치료해야한단 의견이 있다. 그럼 앞 으로 코가 낮아서 면접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눈이 작아서 면접에 자신감이 없 다 등 이런 경우도 건강보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려나하는 생각도 든다.

건강보험재정이 넉넉해 암 등 중증·희 귀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삭감 없이 탈모 치료도 지원한다면 찬성하겠다. 하지만 줄어든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 게 하기 위해 중증·희귀환자 지원은 줄이 고 탈모환자 지원은 신설하는 것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탈모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미안하다. 다만 우리 가족 중 암 환자와탈모 환자 모두가있다고한 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럼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힐 것 같다.

riby@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만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K Spirit. The Kia K8



Movement that inspires

시그니처 스페셜, 플레티넘 전용, 몬스케이프 매트 그레이(KLM) /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입문의 1588-1100 | 고객센터 080-200-2000 | www.kia.com

기아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K8 2.5 가솔린 17인치 : 복합 12.0km/ℓ (도시: 10.3km/ℓ, 고속도로: 15.0km/ℓ)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540kg | 복합CO₂배출량 140g/km - 3등급 • K8 2.5 가솔린 17인치 (빌트인 캠) : 복합 11.9km/ℓ (도시: 10.2km/ℓ, 고속도로: 14.9km/ℓ)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540kg | 복합CO₂배출량 141g/km - 3등급 • K8 2.5 가솔린 18인치 : 복합 11.7km/ℓ (도시: 10.1km/ℓ, 고속도로: 14.4km/ℓ)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560kg | 복합CO₂배출량 144g/km - 3등급 • K8 2.5 가솔린 19인치 : 복합 11.4km/ℓ (도시: 9.8km/ℓ, 고속도로: 14.0km/ℓ)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570kg | 복합CO₂배출량 148g/km - 4등급 • K8 3.5 가솔린 18인치 : 복합 10.6km/ℓ (도시: 9.0km/ℓ, 고속도로: 13.4km/ℓ)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1,640kg | 복합CO₂배출량 160g/km - 4등급 • K8 3.5 가솔린 18인치 (빌트인 캠) : 복합 10.5km/ℓ (도시: 8.9km/ℓ, 고속도로: 13.2km/ℓ)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1,640kg | 복합CO₂배출량 162g/km - 4등급 • K8 3.5 가솔린 19인치 : 복합 10.3km/ℓ (도시: 8.8km/ℓ, 고속도로: 13.0km/ℓ)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1,650kg | 복합CO₂배출량 165g/km - 4등급 • K8 3.5 가솔린 18인치 AWD : 복합 9.7km/ℓ (도시: 8.2km/ℓ, 고속도로: 12.5km/ℓ)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1,705kg | 복합CO₂배출량 175g/km - 4등급 • K8 3.5 가솔린 18인치 AWD(빌트인 캠) : 복합 9.5km/ℓ (도시: 8.0km/ℓ, 고속도로: 12.2km/ℓ)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1,705kg | 복합CO₂배출량 180g/km - 4등급 • K8 3.5 가솔린 19인치 AWD : 복합 9.3km/ℓ (도시: 7.9km/ℓ, 고속도로: 12.0km/ℓ)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1,715kg | 복합CO₂배출량 183g/km - 5등급 • K8 3.5 LPI 17인치 : 복합 8.0km/ℓ (도시: 6.8km/ℓ, 고속도로: 10.0km/ℓ)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1,625kg | 복합CO₂배출량 166g/km - 5등급 • K8 3.5 LPI 18인치 : 복합 7.7km/ℓ (도시: 6.6km/ℓ, 고속도로: 9.6km/ℓ)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1,670kg | 복합CO₂배출량 172g/km - 5등급 • K8 1.6 터보 하이브리드 17인치 : 복합 18.0km/ℓ (도시: 18.2km/ℓ, 고속도로: 17.7km/ℓ)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630kg | 복합CO₂배출량 88g/km - 1등급 • K8 1.6 터보 하이브리드 17인치 (빌트인 캠) : 복합 17.6km/ℓ (도시: 17.6km/ℓ, 고속도로: 17.7km/ℓ)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630kg | 복합CO₂배출량 91g/km - 1등급 • K8 1.6 터보 하이브리드 18인치 : 복합 17.1km/ℓ (도시: 17.2km/ℓ, 고속도로: 16.9km/ℓ)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650kg | 복합CO₂배출량 94g/km - 1등급 • K8 1.6 터보 하이브리드 18인치 (빌트인 캠) : 복합 16.8km/ℓ (도시: 16.9km/ℓ, 고속도로: 16.6km/ℓ)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650kg | 복합CO₂배출량 96g/km - 1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상기 제원 및 사양은 성능 향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